

윤석열 대통령, 태풍 카눈 대비상황 긴급 점검.. "인명피해에 방을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월 8일 오후 태풍 카눈 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태풍의 진행 상황 및 전망과 범정부적 대처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전국 해안·주요도로의 CCTV를 통해 지역별 상황을 확인하고, 위성으로 파악한 태풍 이동 경로와 한반도 폭염 상황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호우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태풍 소식이 있어서 국민의 근심이 큰 만

과 관련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을 방문한 세계의 청소년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태풍 대비상황을 보고 받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태풍의 영향으로 9일 오후부터 한반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11일 오후에는 태풍이 경기, 강원 북부로 빠져나갈 예정"이라고 보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3년간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보강했다"고 보고했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댐과 저수지를 사전에 방류해 물고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전화·문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보고했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취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주호 부총리와 지역 협력 교육개혁 논의

순천대 글로벌대학 본지정·국립의대 설립 등 현안 건의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도청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벌대학 등 지역 협력이 필요한 교육개혁 과제를 논의 하고 순천대의 글로벌대학 본지정 등 현안을 건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다.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교육부 교육개혁 과제의 핵심축이다.

간담회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지역대학 총장 등이 함께해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학과 산업체가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지역의 주력·미래첨단 산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과 연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의 글로벌대학 본지정, 국립의과대학 전남도 신설, 외국인 유학생 지역특화 및 비자개신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대학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 혁신과 발전을 이끌 주체"라며 "지자체, 대학, 산업계가 힘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의 강점 및 미래 전략산업을 연계한 지

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인구절벽,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범정부 플랫폼으로서, 그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혁신주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도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교육 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 앞서 도청·교육청 직원 및 대학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개혁 특강이 진행됐다. 이 부총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벌대학, 늘봄학교, 유도통합 등 교육개혁과제 전반에 대해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 등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인 전남도는 대학지원 전담 부서인 대학혁신 추진단을 지난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 설치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 등으로 직면한 인구소멸 및 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도내 대학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라이즈 추진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영국 스카우트 대표와 긴급 면담...잼버리 7대원 지원방안 논의

6일 면담 후, 영국스카우트 측 요청사항 4가지 적극 검토 답변

오세훈 시장은 6일 13시 집무실에서 매트 하이드(Matt Hyde) 영국 스카우트 연맹 대표, 개러스 위어(Gareth Weir)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와 긴급 면담을 실시하고, 서울시가 수도권에 머무르는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국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가장 많은 인원인 4,300명의 대원을 파견했다. 이 자리에서 영국 스카우트측은 서울시에 4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① 수도권에 머무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공유의 장 제공 검토 -오 시장은 이 요청에 대해 서울광장, 평화로광장, 여의도 한강공원 등의 장소

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② 예술에 재능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버스킹 공연 장소 제공 -버스킹 성지 홍대 등지에서 대원들이 자유롭게 재주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③ 영국 대원 전원이 한국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실내 공간 지원 -현재 대형 스타디움, 체육관, 대학운동장 및 강당 등 이용 가능한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④서울관광패스(DSP) 할인 판매 -서울 주요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는 서울관광패스(DSP)를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추가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안해 달라면서,

향후 추가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매트 하이드(Matt Hyde) 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데 이와 같은 서울시의 감명깊은 대응에 감사를 표하고 실무진과의 빠른 협의 후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담 후 양측 협의를 통해 서울에 도착해 있는 영국 대원들을 위한 시티투어버스 운행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금일 21시 30분 영국 대원 200여명이 광화문을 출발해 반포대로, N서울타워, 청계광장 등의 코스를 운행하는 시티투어 버스에 탑승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영양 들머리-보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은 생생한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머리보내기

들머리보내기 매력은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물, 빛, 맛, 심, 숲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의 남이도,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봉공원, 촉석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물머리,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김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해남보호공원, 반딧불이천모든,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공력박물관, 흥림산자연유원지,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목야생화전시관

경기도, 10월 개최 경기국제웹툰페어 참관객 사전 모집

2023 Webtoon Fair 경기국제 웹툰 페어

2023. 10.05.(목)~10.06.(금) / 2일간

2023. 10.06.(금)~10.08.(일) / 3일간

KINTEX 제1전시관 4홀

www.webtoonfair.com

경기도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에서 '경기국제웹툰페어'를 개최함에 따라 전시회 무료입장 참관객을 10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모집한다. 경기국제웹툰페어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가 공동 주관한다.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이야기의 원천으로 주목받는 웹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열리고 있다. 전시관은 유명 웹툰 작품과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웹툰존, 웹툰 관련 학과가 참여하는 아카데미존, 웹툰·게임·출판 등 웹툰 관련 연계 콘텐츠를 다루는 웹툰존, 다양한 굿즈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굿즈&마켓존으로 구성된다. 웹툰페어 기간 전시회뿐만 아니라 웹툰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B2B)도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상담회에 참여할 기업을 8월 말부터 모집할 계획이다. 참관객 사전 모집과 더불어 전시회에 참여할 업체와 작가도 지속 유치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국제웹툰페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올해 웹툰페어도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참여형 이벤트도 기획 중이니 웹툰 산업 관계자와 참관객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활성화 박차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컨트롤타워 구축 제안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는 25일 구미에서 "경상북도 아동, 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더케어의 강남규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 내 초, 중, 고 학생의 경제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안팎의 체험형 교육기회 확대,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수법 중심의 교사 연구 강화, 경제교육 요소를 추가한 학부모 교육과 가정체험활동 연계 등을 제시하고,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경제교육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정책 제안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홍구 의원은 사회 진출이 비교적 빠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 대책과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경북지역 학생들의 경제교육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이날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에게 요청

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윤종호 의원은 해외 우수사례로 제시된 청소년 교육 NGO 중 하나인 JA(Junior Achievement, 청소년 교육 국제 NGO)의 경제교육 사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선진 우수사례를 경상북도에 도입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과 청소년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경북도가 아동·청소년 경제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한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는 윤종호 대표 의원을 비롯한 권광택, 김홍구, 손희권, 차주식, 황두영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서, 지난 5월 15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3개월간 진행됐으며, 연구결과를 향후 정책발굴과 대안제시 등 의정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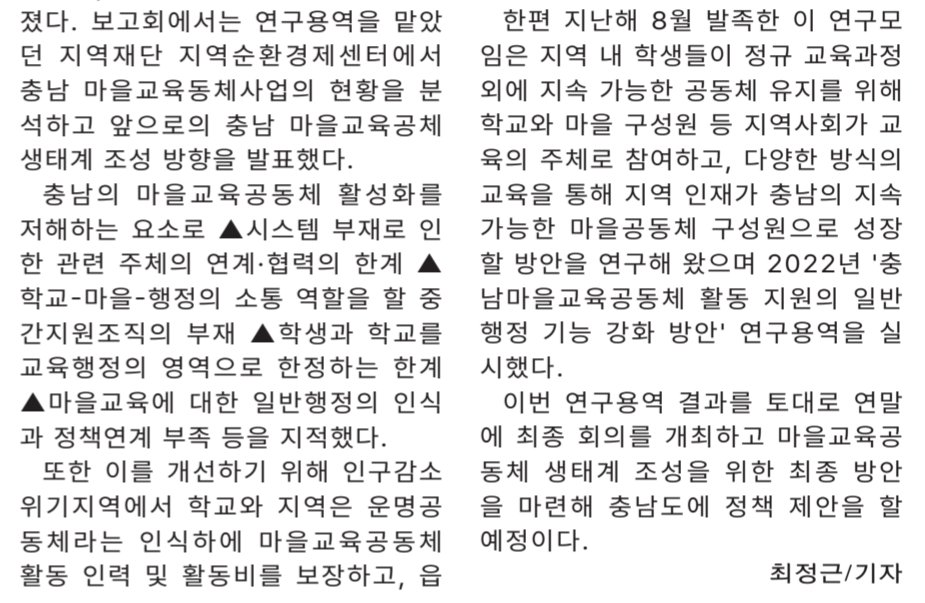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충남도의회, 인구감소 지역에 마을교육 활동 지원 정책 필요성 제안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 연구모임' 활성화 과제와 대안 제시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 위기지역에서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 교육의 주체로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마을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해 읍면동 행정과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조직과의 연계·협력의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필요성을 제시했다. 도의회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 연구모임'(대표 김명숙)은 7일 충남도립대에서 회원 및 연구진, 의회 입법부서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 교육의 주체로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방안 활성화에 대한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연구모임은 2023년 과제인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읍면 단위 정책협력 강화 방안 연구'(이하 연구용역)용역의 최종보고회도 함께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았던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에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 방향을 발표했다. 충남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시스템 부재로 인한 관련 주체의 연계·협력의 한계 ▲학교-마을-행정의 소통 역할을 할 중간지원조직의 부재 ▲학생과 학교를 교육행정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한계 ▲마을교육에 대한 일반행정의 인식과 정책연계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감소 위기지역에서 학교와 지역은 운영공동체라는 인식하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인력 및 활동비를 보장하고, 읍

면동 행정과 주민자치조직 등 지역사회 주민조직과의 연계·협력의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농산어촌 마을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은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확보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 부처에서 마을 단위에 개별 추진되는 사업들의 효과를 높여야 하며, 대표적 마을조직인 주민자치회 등 주민협의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읍·면 단위 행정뿐 아니라 기초·광역 단위 지방정부의 조정·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발족한 이 연구모임은 지역 내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가 충남의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2022년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의 일반행정 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최종 회의를 개최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종 방안을 마련해 충남도에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청송군의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송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착수보고회



청송군의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소멸 대응연구회'는 7월14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송군 인구소멸 대응 사례조사 및 대처방안 연구'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인구소멸대응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우수사례조사 및 청송군 실정에 맞는 인구소멸 대처 방안을 찾는 연구 단체이며, 정미진 의원을 대표로 황진수 의원, 박신영 의원이 소속되어 '문화관광진흥연구원(대표 서철현, 경산시소재)'과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심상휴 의원을 대표로 권태준 의장, 윤영경 의원, 조찬걸 의원이 소속된 '청송관광활성화연구회'는 청송군 관광의 현 상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민과 함께 먹을거리를 포함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증진을 목적으로 연구하는 단체이며, '(사)한국정치

발전연구원(대표 최주근, 경산시소재)'과 함께 최근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정미진 대표의원, 황진수 부의장, 박신영 의원을 비롯해 용역 수행업체인 문화관광진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착수보고회는 용역수행 업체에서 △과업 개요에 대한 설명 △국내외 인구 증가 대책 사례조사 △인구감소 대응방안 도출 등 연구 수행의 구체적 방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대표 의원인 정미진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청송군의 실정에 맞는 지방소멸 대처 방안을 도출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 관련 부서와 함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히 공부하고 토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 대구 도심 고압가스관 매설 반대

대구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되는데도 대구시 방관 비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사업을 반대하는 한편, 대구시의 적극적인 조정과 대처를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계획은 지역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압가스관 매립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김대현 의원은 "도심지에 고압가스관을 매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안전 위해시설물이 주거시설에 인접해 있는 것만으로도 주민 삶의 질은 급락하고, 최근 지하 매립시설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고압가스관 설치에 대한 주민의 근심과 두려움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대현 의원은 "한 연구에서는, 지금 대구시에 매설하려는 4Mpa(40기압)의 압력의 LNG 고압가스관은 폭발 사고 발생 시, 피해반경이 무려 500m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성만을 고려

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압가스관을 도심에 매설하려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 대구시가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에 도시안전과가 신설되자마자 이러한 도심 안전 위해 요소가 시설되는 것은 시장 운영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구시가 도심지에 고압가스관이 지나지는 지역이 된다면, 향후 지역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므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이들 공기업의 사업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근수/기자



영광군의의회 정선우·조일영 의원,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NO EXIT' 캠페인 동참

영광군의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정선우 의원과 산업건설위원장 조일영 의원은 8월 7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주관하여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범국민 캠페인으로, '출구 없는 마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해 언론보도, 온라인 등으로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날 정선우·조일영 의원은 강필구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정 의원은 다음 주자로 박

삼성 법성면장과 김혜영 바르게살기 운동 영광군협의회 여성회장을 지목했고, 조 의원은 다음 주자로 박순희 군남면장과 서정진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을 지목했다. 정선우 의원은 "이번 캠페인 참여로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환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영광군의 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일영 의원은 "최근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청소년들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규/기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4회 무의도 춤 축제'에서 구민들과 교류의 시간 가져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5일,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24회 무의도 셋째 공주와 호랑이 춤 축제'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중구의 대표 문화행사인 무의도 춤 축제는 무의도 주민의 삶 속에 문화예술이 스며들고 주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구의회 강후궁 의장을 비롯해 정동준 부의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김광호 의원, 손은비 의원, 김정현 중구청장, 차광영 무의도 아트센터 대표, 장

동준 하나개해수욕장병영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후궁 의장은 "매년 이곳 무의도의 여름 밤하늘을 들썩이고 은빛 모래사장을 흥겨운 무대로 만들었던 중구의 대표 문화행사인 오늘의 무의도 춤 축제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박영민·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부회장:박유석·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대선(112) 문화부:대선(116)
 사회부:대선(113) 부동산부:대선(117)
 광고국:1899.9659 경제부:대선(114) 오피니언부:대선(118)
 스포츠부:대선(115) 지방부:대선(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키야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석규 의원, 도시철도 운임인상에도 의정부경전철 운임 동결수준 유지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 마련 공청회'에서 수도권 전철의 서비스 개선을 주문하고, 도시철도 기본운임이 인상되더라도 의정부 경전철 요금은 동결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GRDP(지역내총생산)가 낮은 경기북부 도민들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서울 등 인근 도시에 출퇴근하고 있어 수도권 철도 이용률이 매우 높다"라며 "1호선(경원선) 증회, 증차(배차간격 단축), 급행열차 강화, 연차·지연 최소화 등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안 관련, '의정부경전철' 예를 들며, '기본운임(1,250원) + '별도운임(300원)'으로 의정부시민들에게는 도시철도 운임 중 가장 비싼 1,550원을 지불하며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다며, 기본운임을 올리면서 수입 보전을 위한 별도운임을 받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민의 부담 가중으로 운영비 적자 폭을 메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본운임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운임의 인하를 통해 동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시의 재정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지만,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지불하는 운임으로 해소하려는 접근 방식 보다는 유료 탑승자의 무료 탑승 시 페널티 부과 관리 철저 및 신규 이용자 창출을 위한 '1일 이용권(1 Day Pass)', '주말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해 탑승률을 높이고, 의정부 관내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일선 시군의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 7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적용에 따라 수도권전철(도시철도 포함)의 기본운임을 1250원→1400원으로 150원 인상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유호준 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0일(목)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을 교원에 대해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18일 한 20대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후속 조치로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책임조례'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폭언에 시달릴 때 태타이 매고 교육청에

앉아서, 아니면 방방곡곡 행사 다니며 '자유'를 만끽하신 분이 '책임'은 경기교육 책임자인 내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교육감의 행보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전한 일터에서 나의 노동이 존중받는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교사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바꿔보겠다."며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공표한 바 있다.

전교조 경기교사노조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며 조례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입법예고는 조례 개정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 출입 수칙 관련 조항을 포함해서 교사노조, 교직원노동조합 등 다양한 교원단체와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개정안 제출 전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뜻을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0일(목)부터 17일(목)까지이며,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사도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필요성 긍정적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경기도민 대상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0.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 필요성은 81.1%, 학생인권조례 상벌제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은 80.7%가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분리 교육 처분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도민의 높은 공감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도민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41.2%, 이하 1+2순위 기준)을 꼽았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제제 보완 시행

(31.4%)',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30.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9.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26.6%)' 순으로 답했다.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사항으로는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책임 의식 제고(60.9%)'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학교와 가정을 잇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45.2%)',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31.5%)'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필수교육 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 27일부터 4일간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다.

김범상/기자



국중범 의원, 저출산 해결을 위해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0세아전용어린이집연합회 유성애 회장 및 관계자,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혜원 센터장, 경기도 보육정책과 박재철 보육지원팀장, 상명대학교 김호정 교수와 함께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출생 후 만 1세까지 영아의 돌봄을 위한 0세전용어린이집을 28개 시군, 330개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0세아전용어린이집은 육아휴직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 발달과업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0세아전용어린이집연합회 유성애 회장은 "조리사 인건비 및 추가반 운영비를 통해 안정된 보육과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내 0세아전용어린이집이 활성화되기 위해 0세아전용어린이

집에 대한 홍보 및 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으며, 도 박재철 보육지원팀장은 "0세아전용어린이집은 2017년 257개에서 2023년 330개로 많이 늘어났다. 다만 지역 편차가 크다 가장 많은 0세아전용어린이집이 있는 고양은 현재 31개가 운영 중이지만,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시군이 2개나 있다. 이러한 편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0세아 돌봄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를 이야기하였다.

상명대학교 김호정 교수는 "18개월 이하 영아의 발달과업에 맞는 돌봄을 0세아전용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다는 걸 부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영아의 경우 부모나 육아도우미가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언어 자극 등 효과적인 상호작용이나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가정 보육보다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0세아전용어린이집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0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타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0세아전용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0세아전용어린이집이 더욱더 확대되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으며 "필요하다면,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다양한 보육 주체가 모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 하겠다 참여해서 지혜를 모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김범상/기자



최민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배달특급 활용 등 논의

로개적 사업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업 배경으로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빅테크 중심의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대다수 동네슈퍼는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급변하는 시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네슈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매 물류 인프라 개선 및 경기도 배달플랫폼 사업의 배달특급을 활용한 다양한 판매채널 확대, 특히 온라인 판로개척 등 새로운 판로개척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최민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해 경기도 배달특급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시장 논리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주어야 한다. 사업성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보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골목슈퍼의 새로운 온라인 판로개척"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장은 배달플랫폼 사업의 활용성을 높여 다양한 판로개척 성공사례를 들려 "동네슈퍼 대다수가 해당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네슈퍼의 디지털 기반 전환 및 경기도 배달특급 활용 입

하여 새로운 판로개척이 절실하다"면서 "우선 몇 개시 대상 동네슈퍼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 전 지역에 확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민 의원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예상 지표 등 자료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조속히 자료 업데이트가 선행되어야 함을 경기도주식회사에 당부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공적인 명분이 명확하면 해야 함의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슈퍼의 다양한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김철현.김재훈.유영일 의원, 주요현안사업 공유 및 정책 정담회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예산부서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철현 의원은 박달로 등 2개소 도로환경 개선공사, 호돌이어린이공원 등 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형 탐지 시스템 확대구축, 삼막천 산책로 연결공사 등 집중현안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학의천 퇴적토 준설, 도서관 소음 중화 시스템 설치, 향기어린이공원 재정비 추가예산 확보 등 지역구 현

안사업을 논의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자유공원 분분 경기장 폐쇄 및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비 확보가 필요한 의원들의 지역구 현안사업들에 대해 예산부서와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안양시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중간적인 가교역할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수원의 여름밤, 열대야대신 즐거운 추억으로 채운다!

11~13일 행궁동 일원 '문화재 야행', 18~20일 제1야외음악당 '발레축제'

한여름 더위는 심이 없다. 각종 중의보와 경보로 휴대폰마저 심이 없을 정도다. 한낮의 폭염이 기승을 떨치고 나면 저녁이 되어도 열대야가 이어져 하루하루가 고되게 느껴진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즐기는 것이 상책. 수원시민의 주말 저녁을 무더위로 인한 짜증 대신 즐거운 기억으로 채워 줄 '2023 수원 문화재 야행'과 '2023 수원발레축제'로 초대한다.

◇'2023 수원 문화재 야행' 팔색(八色) 매력에 풍덩~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품은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원이 11~13일 저녁 불야성을 이룬다. 3일간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야간형 역사문화 프로그램 '기억의 문이 열리는, 수원 문화재 야행(夜行)'이 열려 골목마다 즐거움이 가득하다. 행궁동 일대 문화재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상권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화재와 함께하는 여름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일년에 한 번뿐인 기회다.

올해로 벌써 7회를 맞는 수원 문화재 야행의 주제는 '기억'이다. 수원화성 축조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지는 수원의 역사, 그 안에 살던 이웃과 터전, 기후변화에 인한 환경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생태 이야기를 8색 매력으로 풀어낸다.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夜) 프로그램을 구성해 취향에 맞춰 골라 즐길 수 있다.

먼저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야경

(夜景)'은 문화재와 문화시설을 야간에 관람하는 것이다. 화성행궁(오후 9시 입장 마감)과 수원시립미술관, 수원화성박물관, 열린문화공간 후소, 행궁길갤러리, 수원종로교회 역사관, 북수동성당 뿔리화랑, 한옥기술전시관, 수원전통문화관, 팔달문화센터 등 일대 9개 문화시설이 밤 늦게까지 연장 운영된다.

밤에 걷는 거리 '야로(夜路)'는 미션투어 프로그램 '야행문을 잡아라!'가 핵심이다. 수원청계구리 등 멸종위기 동식물을 캐릭터로 만든 야행문이 출몰하는 5개 장소에서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받을 수 있는 탈부착 스티커를 모아 도감을 완성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여행길은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과 한국관광공사 오디오 해설투어 Odii를 이용하면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밤에 보는 그림 '야화(夜畵)'는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1796년 수원화성 완공 이후 흘러온 227년의 기억을 미디어작품, 조형물, 기록전시 등 9가지 작품으로 담았다. 특히 수원시립미술관 외부 거대한 유리 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조명파사드 '정조의 꿈'은 반차도와 무예24기 등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정조테마공연장 마당에서 연출되는 레이저아트 '새빛 야행, 하늘에 물들다'는 희망의 빛 오토라를 통해 색다른 밤 분위기를 선물한다.

야행 기간 동안 행궁동 곳곳은 밤에

감상하는 공연 '야설(夜設)'의 무대가 된다. 수원지역 대학 동아리 학생들의 모던 록과 재즈, 대금·해금·가야금 등 자주 접하지 못했던 우리 전통악기 연주자의 버스킹, 미술관 실내에서 듣는 수원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무료 공연 등이 귀를 즐겁게 해준다. 수원시립미술관 옥상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공감, 달빛옥상 콘서트'와 정조대왕이 백성을 위해 베푼 잔치 낙성연을 모티브로 화성행궁 비장청에서 진행되는 EDM 공연 '행락, 낙성연' 등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인터파크에서 사전예매를 해야 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인 발에 탈을 씌워 노는 발탈 공연도 유료로 진행되니 예매하는 것이 좋다. 풍물과 장용영 수위의 식 및 교대의식, 무예24기, 검무 등 시간대별로 무료 전통공연을 즐기고 싶다면 신평루 앞이 명당이다.

밤에 듣는 역사이야기 '야사(夜史)'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쇼형 형식의 '일상의 기억, 책가도'가 있다. 정조대왕과 수원화성, 정조시대의 무예, 행궁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이선경, 이현경, 김향화 등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들려주는 '산루리의 영웅'이 이동형으로 거리극으로 눈길을 끈다.

밤에 즐기는 장소 '야시(夜市)'는 수원의 시민들이 만든 마켓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다. 행궁동 주민들이 중심이 된 '행궁마켓', 로컬 문화 콘텐츠를 판매하는 '수문

장&마켓여유', 행리단길 지역 작가들이 모인 '행궁동 작가단' 등이 곳곳에서 작품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밤에 먹는 음식 '야식(夜食)'도 즐길 수 있다. 화성행궁 맞초거리, 생태교통마을, 남문로데오거리, 통닭거리 등의 식당 중 다수가 야행에 참여해 연장 운영한다. 수원전통문화관에서는 전통주 및 궁중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수원의 문화재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야숙(夜宿)'도 가능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수원사의 행복명상 템플스테이와 수원시 숙박업소를 이용한 내역을 보여주면 화성행궁 광장 티켓부스에서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올해 문화재 야행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무해한 야행'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장 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야행 줄기단'과 플라스틱 재활용(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플라스틱 보물찾기 탐험대' 등이 있다.

공식적인 개막 점등식은 11일 오후 8시 행궁광장에서 진행되며, 행사기간 중 행궁로 공방거리와 생태교통마을 일대는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많은 관람객이 몰릴 수밖에 없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은 수원 문화재 야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수원발레축제' 열대야 및

는 아름다운 춤사위

18~20일에는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한여름 밤의 꿈 같은 발레축제를 즐길 수 있다. 올해로 벌써 9회째를 맞는 2023 수원발레축제는 수원의 여름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공연예술제로, 국내 최정상급 발레단들의 수준 높은 레퍼토리를 가까이 감상하는 기회다.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이원국발레단, 와이즈발레단, SEO발레단, 김옥련발레단, 정형일발레크리에이티브, 윤별발레컴퍼니, K-ARTS 발레단 등이 3일간의 메인 공연에 참여한다. 매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6~7개의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첫날인 18일은 '클래식&모던', 19일은 '발레 마스터피스', 20일은 '발레 갈라스펠'을 주제로 작품이 구성된다. 매년 다른 발레단이 다른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발레의 매력을 보여주는 만큼 매일 방문해도 좋다.

보는 매력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사장인 수원제1야외음악당 분수광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발레리나의 사인 토슈즈 전시회가 열리고, 발레의상 입어보기 및 토슈즈 신기 체험, 움직이는 발레조각전, 발레요정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메인공연이 시작되기 전에는 관객들이 함께 발레의 기본 움직임을 토대로 한 '발롱체조' 배우기에 도전하며 재미를 더한다.

수원발레축제를 주관하는 발레STP 협동조합은 올해 더 많은 시민들이 발레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다. 지난 4~6일 수원시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총 6회의 발레 IN 횡단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앞서 지난달 25~27일 수

원kt위즈파크에서 야구경기가 열리던 중, 발레리나와 발레리노의 깜짝 버스킹 공연을 통해 관심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12~14일 발레 마스터를 초청해 발레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마스터 클래스', 12~16일 취미로 발레를 배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발레체험교실', 17일 학생과 일반부 자유참가 공연으로 꾸며지는 '전야제' 등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발레를 접할 수 있도록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대야가 지속되며 지친 시민들이 여름밤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마스크 착용 권고 등 개인 안전 및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즐겁고 안전하게 수원 문화재 야행과 발레축제를 즐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100만 시민을 위한 먹거리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화성시가 7일 100만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제2차 화성시 먹거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해 관계부서장, 유관 기관장, 먹거리위원회 등 30명이 참석했으며, 먹거리에 대한 화성시민의 인식조사 및 분석결과, 먹거리위원회 운영현황과 결과, 먹거리계획의 핵심가치 및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시는 이번에 수립된 제2차 화성시 먹거리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2027년까지의 먹거리계획 실현을 위한 53가지 전략사업을 추진검토할 예정이며, 먹거리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먹거리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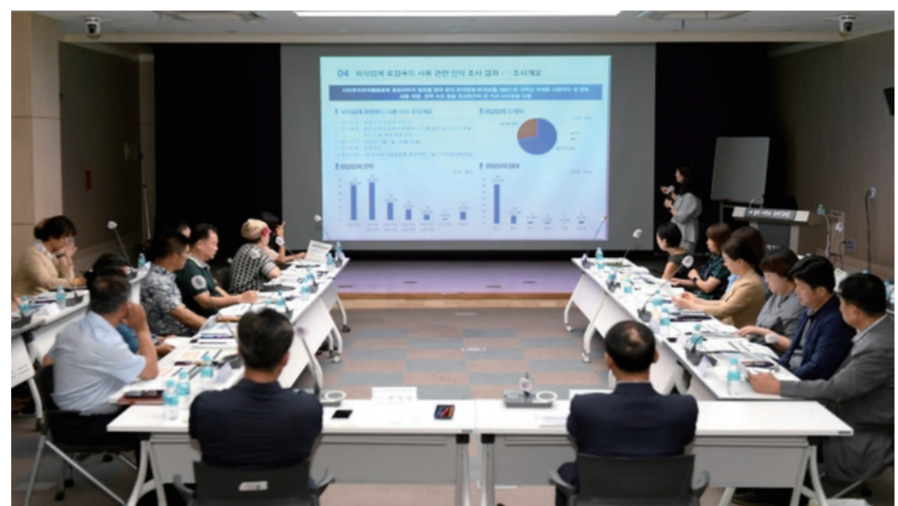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은 "이번에 수립되는 먹거리계획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먹거리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며 "100만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먹거리계획에는 ▲농가조직화 프로그램 실행 ▲생산체계 개편 ▲시민의 로컬푸드 접근성 제고 ▲건강한

식문화 형성 ▲먹거리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먹거리보장 정책 기반 구축 ▲마을단위 먹거리 돌봄체계 강화 ▲생태 및 환경보호 ▲음식물류 폐기를 저감 및 자원화 등이 담겼다.

양시현/기자



성남시 서현역 사고 관련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 시행

신흥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비상근무 체제...정신건강전문요원 29명 상주

성남시는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위해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현역 사고 관련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 등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고위험군을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자원을 연계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29명이 상주하는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신흥동 수정구보건소 5층)를 이달 말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이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 상담 창구와 24시간 가동하는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를 동시 운영한다.

방문 또는 전화로 심리지원을 요청하면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등

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1대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과정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개인맞춤형 지속 상담을 진행한다. 치료가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해당 서비스는 서현역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서현역 사고(8.3)부터 7일 현재까지 15명과 36번의 전화 상담하고, 이 중 1명은 의료기관에 연계했다"면서 "적극적인 심리지원으로 불안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잼버리 대체장소 제공 적극협조...성공적 마무리 전폭적 지원"



고양특례시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체장소 킨텍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공적인 대회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정부, 킨텍스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 잼버리 대체장소 제공을 검토하고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카눈' 한반도 북상으로 8일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 야영지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고양시는 7일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이전과 관련 TF회의를 갖고 대체숙소 및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고양시는 킨텍스를 잼버리 대체장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스카우트 대원들의 이동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용가능 인원, 숙박, 세면, 식사, 의료, 관광, 통역 등 지원방안을 검토했

다. 고양시에 따르면 킨텍스는 현재 제1전시장 2,4,5홀, 제2전시장 6,9A홀이 수용가능하며 텐트 4400동, 약 8800명(1동 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화장실, 세면, 샤워 식사 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 관내 잼버리 청소년 수용가능시설은 소노캄 고양,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 동양인재개발원, NH인재원, YMCA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항공대기숙사 등으로, 약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필요에 따라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을 분산 수용하여 맞춤형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시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체형활동을 지원할 문화, 관광 체험 등 세부 지원방안도 구상 중이다. 고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 킨텍스를 비롯해 북한산, 행주산성, 람사르 장항습지, 현대모터스튜디오, 아쿠아플라넷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영기/기자

안양시, 시민안전 위한 특별치안활동 적극 협조...동안·만안경찰서장과 간담회 개최

이달 4~6일 안양역·범계역 등 순찰 실시...다중밀집지역 방범활동 강화

안양시는 7일 오후 3시30분 시청 접견실에서 동안·만안경찰서와 '경찰 특별치안활동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구은영 동안경찰서장, 이연형 만안경찰서장이 참석해 관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망을 적극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시는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등을 통한 CCTV(보안용 카메라) 관제 상황 신속 공유, 민·관 합동순찰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는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서현역 사고를 비롯해 잇따라 발생하는 흉기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동안·만안경찰서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안양역, 범계역, 안양일변가 등 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이 함께 민·관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동안·만안경찰서는 비상기간 동안 관내 순찰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잇따른 사건·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안양시는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경찰 및

민간단체의 순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시흥시민, 배움에 날개를 달다 '시흥교육캠퍼스 쪽(SSOC)' 오픈 1주년

1년간 콘텐츠 조회건수 33만 건

시흥교육캠퍼스 쪽(SSOC)이 1주년을 맞았다. 시흥시는 지난해 8월 9일 시흥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플랫폼 쪽을 선보였다.

사회가 다변화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며 평생교육은 선택에서 필수가 된 지 오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쪽은 이러한 교육의 시대적 요구를 흡수하며 지역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좋은 정책 어워드에서는 '좋은정책상'을 수상하며 그 효과성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 시군 합동연찬회 우수사례 소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이 이어지며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배움·소통·참여' 교육플랫폼 영역 확장해 온 1년

쪽에서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고, 시흥시에서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교육자원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연계 구축해 한번의 회원가입을 통해 두 개의 플랫폼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배움'과 '소통' '참여'가 이뤄지는 온라인교육캠퍼스 쪽을 표방하며, 그 역할을 확장한 것이 쪽의 가장 큰 특징이다.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통해 지역교육의 선순환을 이뤄가는 것이다.

쪽에는 현재 963개의 전문교육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다. 분야도 외국어, IT, 자격취득, 인문, 생활취미 등이 가능하다.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생애교육도 있다. 지난 1년간 쪽에서 제공한 전문교육 콘텐츠는 1,550개에 달한다. 내 지역을 더 알아가는 시간, 시흥클래스도 인기가 좋다. 환경교육의 성지인 시화호의 어제와 오늘을 알아보는 강좌나 서울대 교수가 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등 시흥시 발전과 혁신 통해 일반교양을 쌓을 수 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학습할 수 있는 화상학습에는 인지심리학자 김영일 교수, 개그맨 김명철 등 국내 유명 강사들이 참여했다. '사람도서관'은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돼 경험과 재능을 공유하고, 독자와 공감·소통하는 재능기부형 도서관이다. 쪽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시흥시도서관이나 온라인을 통해 열람을 원하는 독자와 만나 대화를 나눈다. 현재 571명의 사람책이 등록돼 있다.

내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다면, 쪽에서 스튜디오를 예약하면 된다.

또 시흥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볼 수도 있다. ▲평생학습포털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서울대학교 협력사업 ▲시흥시청소년재단의 교육정보 843건을 제공했다.

플랫폼 고도화·소외계층 학습권 강화 나서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시흥시 평생학습포털과 행복교육시스템 등 교육 사이트를 통합하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흥시가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쪽 안에서 만나볼 수 있어, 시민의 교육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르신, 장애인 등 학습 소외계층의 학습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시는 시흥시자원봉사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손잡고 온라인 학습지원 봉사단인 쪽 서포터즈도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14개 관계부서·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시흥시만의 교육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시흥의 역사/생활문화/인물/소리/번천사 등 18개 지역학습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8월 9일 쪽 출범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신중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정서지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화상학습 명사특강을 진행한다.

시흥교육캠퍼스 쪽(SSOC)은 포털 사이트에서 '시흥교육캠퍼스 쪽'을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App) 스토어에서 '시흥교육 쪽' 검색·설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평생학습과(031-310-2532~4)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시흥교육캠퍼스 쪽(SSOC)을 통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도시 시흥을 만들어 가겠다"며 "모두가 누리는 교육, 모두가 성장하는 도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지역이 촘촘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돕고, 개인의 역할을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교육의 선순환. 시흥시가 교육플랫폼 쪽(SSOC)을 통해 펼쳐가는 교육도시의 비전이 시민의 삶에 차곡차곡 실현되고 있다.

신우용/기자



용인특례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저탄소 도시재이용수공급시스템' 사업 지원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업무 협약 체결...올해 11월까지 10곳에 '도시재이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용인특례시가 한국환경공단과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10곳에 '저탄소 도시재이용수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환경과 관련된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과 친환경 설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실증을 위한 설치비용을 최대 7억원까지 환경부가 지원한다.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수처리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저탄소 도시재이용수공급시스템 구축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안해 지난 6월 국비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가 제안한 '저탄소 도시재이용수공급시스템'은 하수처리수와 빗물을 정화해 공사현장과 도로에 살수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대기질 개선

과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불법 취수를 방지해 오염 배출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상수도 사용량과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정책에 투자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정부지원금 7억원에 민간기업 투자 3억원을 더해 지역 내 10곳에 오는 11월까지 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3년 동안 실증사업의 성과를 매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액 국비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저탄소 도시재이용수공급시스템은 공사현장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도로청소와 농업용수로도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해 탄소중립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미래의 중심 안산, 신도시 조성 박차... 활력 넘치는 도시 기대

장상지구 오는 9월 사전청약 나눔형 439호 시행, 청년·무주택자 기대감 상승



안산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및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으로 ▲안산상상(14,579호) ▲안산신길2(6,192호) ▲안산·군포·의왕(14,625호) 등 총 3개 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는 이번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약 4만 5천여 명의 인구유입(외부 유입률 : 55%)을 예상하고 있다.

안산상상, 안산신길2 지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토지 보상을 시작해 현재 70% 이상 완료됐으며,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안산 장상지구는 나눔형 공공주택을 오는 9월 추가공급(사전청약 439호) 예정으로, 앞서 지난해 10월 장상지구 사전청약 공급이 제외돼 허탈감을 느꼈을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들 사이에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다.

안산·군포·의왕 지구 지정... 사업 추진 본격화

지난 6월 3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안산·군포·의왕 지구는 596만8천m² 규모(약 4만 가구)의 신도시로,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인 안산, 군포, 의왕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자족도시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건건·사사동 일원에 약 200만m² 규모, 약 1만 4천여 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7월 12일 도시기본구상 공모를 실시했으며,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2025년 지구계획 승인 및 토지 보상, 2026년 공사착공, 2030년부터 청년 및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 우선 공급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안산시는 낙후됐던 반월지역

이 활력 넘치는 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는다는 설명이다.

이민근 시장, "교통인프라 확충...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명품 신도시 조성"

◆ 안산장상지구 : 장하역(신안산선) 신설, 고속도로 진출입 나들목(IC) 개설 추진

안산시는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신도시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그 중 하나가 지난 2021년 9월 장상지구 내 신안산선(가칭)장하역 신설을 확정하는 것이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장상지구의 교통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고속도로 진출입 나들목(IC)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장상지구는 고속도로와 인접한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결되는 IC가 없어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해 영동고속도로 안산IC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톨게이트와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 개설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고 현재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에도 도출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나들목 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안산·군포·의왕지구 : 지하철 1호선.4호선과 GTX-C노선 연계 추진

지난 6월 30일 지구 지정된 안산·군

포·의왕 지구는 지하철 반월역(4호선)과 의왕역(1호선) 및 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와 인접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다.

시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 지구 내를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4호선과 연계 착공 예정인 GTX-C 노선(상록수역 정차) 연계 방안을 검토해 철도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 과 함께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 GTX-C 노선 연계 등 촘촘한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명품 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도로 신설,확장을 통해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는 물론, 도로통행 여건을 개선해 3기 신도시와 기존 주거지역 간의 교통인프라 상생을 도모하고 신·구 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조성 이후 30년 대비, 주차 등 기반 시설 문제 선제 대응

한편, 이미 조성된 반월 신도시 및 신길택지지구가 각각 10년에서 30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주차 문제와 생활 SOC시설의 부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3기 신도시 착공에 앞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기 위해 지난 5월 '3기 신도시 생활SOC 등 복합화시설 타당성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최정부/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2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



봉화 한약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건강한 축산물

봉화 한약우는 우수혈통으로 선별한 한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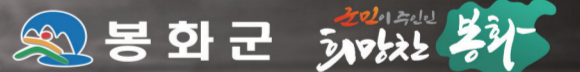
자연의 기를 머금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사육한 명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함께 각종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청정지역 봉화군에서 무항균, 무항생제, 무농약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국내 고급브랜드 한우입니다.

봉화 한약우 프라자



전남도-한전KDN,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발판 협업

23일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15명 모집

전라남도는 한전KDN과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발판 마련을 위한 2023년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키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전문 교육과 실습, 멘토링 등을 실시한다.

지난 2022년 11개 팀 15명이 교육을 수료해 건강 학습플랫폼 구축, 외식 문화 개선 청년창업, 온라인 영어학습 등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사회적경제 창업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벗어난 연령대의 도민도 희망하는 경우 모집인원의 30% 범위에서 일부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15명이다. 전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위탁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상생나무 이메일로 제출

하면 된다.

교육은 9월 한 달간 진행된다.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오는 9월 말 열리는 청년 창업 경진대회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면 창업지원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을 위한 전문 교육 등 특전이 제공된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관심있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



전반전보다 흥미로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반전'은 지금부터!

관람객·수익금 목표 모두 순항, 박람회가 불려온 '정원조성' 열풍까지

개장 130일 차.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에서 214일간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후반전을 향해 가고 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네 달간의 정원박람회 개최 성과를 점검하고 전반전보다 흥미로운 정원박람회 '후반전' 만들기 집중할 계획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3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4월 1일 본격 개장했다. 개장 첫날 15만 5천 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지역 카페와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리 갈 필요가 없을 만큼 완성도 높은 정원이었다", "순천시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후 정원박람회는 개장 12일 만에 100만 관람객을 달성했으며, 84일 차인 6월 23일 50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관람객 수를 기록한 날은 191,959명을 기록한 4월 15일이다. 중소도시 한 곳의 인구를 통째로 옮겨온 숫자다. 수많은 인파와 차량이 쏟아졌지만 안전사고나 교통체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2013 정원박람회를 토대로 쌓은 노하우와 드론-안전관제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철저히 대비한 덕분이었다.

수익금도 목표액을 상회하고 있다. 입장권, 기부, 후원, 휘장 사업, 식음, 판매 수익을 합쳐 8월 7일 기준 256억을 기록하며 당초 목표액보다 3억 원을 초과 달성한 상황이다. 박람회 폐막까지 '피크시즌'을 포함해 아직도 80여 일이 남아 있어 수익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정원박람회를 통해 맑고 밝은 녹색도시의 '이상형'을 선보인 순천의 사례를 배우기 위한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기관·단체 등 공식 방문단 세어도 약 290여 곳이 정원박람회장을 다녀갔다. 개장 이래 매일 두 개 기관 이상이 순천을 찾은 셈이다.

생태라는 고유한 전략으로 도시의 판을 바꾼 순천의 시도가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에 가장 부합한 사례임을 입증하듯, 5월 3일에는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20일에는 권영걸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방문했다. 지난 12월 정원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권 위원장은, 올해 3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장에 오르면서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정원조성 및 정원박람회 유치에 뛰어드는 지자체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순천이 최초로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개최한 이래, 도심 내 녹지 비율이 시민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5월 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순천시 간부진과 함께 순천을 찾았다. 오 시장은

"정원 같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구상에 제일 좋은 모델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서 찾아왔다"라고 밝혔으며, 며칠 후 '정원도시 서울'구상을 발표하고 노관규 순천시장을 '미래서울 아침특강'에 강사로 초대하기도 했다. 7월 31일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방문해 지방정원 조성상 ESG, 탄소중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해안을 얻어갔다.

세종시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부산시는 삼락생태공원 일대를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제도도 대한민국 3호 국가정원을 목표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한민국 전체가 정원에 관심을 갖고 맑고 밝은 녹색 도시로 바뀌어 간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하고도 고무적인 일"이라며, "국내 최초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두 번이나 성공적으로 치러낸 도시로서 얼마든지 노하우를 나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늦 여름에서 가을 사이 정원박람회장의 매력에 절절히 닿을 것"이라며 "이제 '후반전'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정원, 가을에 물들다'라는 주제 아래 가을 분위기와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에는 팡텀싱어 우승팀 '라포엠'과 라이브의 행진 '이승환'의 콘서트,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공연 'Always 7000',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 있다. 10월에도 미스터트롯 출연진의 트로트 공연, 2000년대 레전드 스타를 소환하는 '응답하라 2000', 퓨전마당놀이극 '최진사택 셋째딸 신랑찾기' 등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폐막 직전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는 어린이들의 인기를 한몸에 안았던 박람회 주제공연 '카이로스-습지의 어벤저스'도 다시 무대에 오른다.

박람회장 일대는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로 물든다. 조직위는 9월 중순경부터 노을 정원, 나르샤정원, 네덜란드정원, 오천그린광장 일대에 서로 다른 컨셉으로 국화 26만 본을 집중 식재해 추석 연휴 관람객·귀성객에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여름정원이 피서지로 가장 좋은 여행지였다면, 가을정원은 세상에서 가장 운치 있고 고즈넉한 풍경을 선사할 것"이라며 "정원박람회 관람을 미뤄왔던 분들, 또는 봄여름에 다녀가셨던 분들도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순천만습지를 비롯해 가을정원을 누리러 다시 순천을 찾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함평군, 제6호 태풍 '카눈' 농작물 피해 철저히 대비하세요



전남 함평군이 북상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을 대비해 비닐 온실 등 농업시설과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태풍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풍수에 위험지구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수를 통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해 끈으로 튼튼히 고정시켜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야 하며 비닐 교체 예정인 하우스는 미리 비닐을 제거해야 한다.

수확기에 있는 작물은 태풍 전에 미리 수확하고 배수로 잡초 제거 및 배수 시설을 정비해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해야 한다.

발작물과 노지채소는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고 비가 내리기 전에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를 살포하

는 것이 중요하다.

고추는 줄 지주, 개별지주를 보강해 쓰러짐을 방지하고 피복한 비닐이 날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땅에 고정해야 한다.

과수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열매가 떨어지거나 가지가 찢어질 수 있으므로 나무마다 튼튼한 지주를 세워야 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쓰러진 작물을 서둘러 세우고 흙을 보완해주며 병에 걸렸거나 상처를 입은 열매는 빨리 제거해 다음 열매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군에서도 현장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 태풍 피해 예방과 사후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무더위엔 청정하고 안전한 남원 뱀사골로 피서오세요!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는 더위를 식히는 관광객들이 이어지고 있다.

산내면이 여름 휴가철 물놀이객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어 더욱 안전한 휴양지로 거듭나고 있는 지리산 뱀사골 계곡은, 지리산의 심오한 계곡과 울창한 원시림으로 맑고 시원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여름 휴양지로 손꼽힌다.

지리산 뱀사골은 남원시 지리산 반야봉에서 반산까지 산의 북사면을 흘러내리는 곳에 위치한 14km 계곡으로, 지리산 깊은 산기슭의 맑고 깨끗한 물줄기는 우리나라의 으뜸 물줄기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 명성만큼 잘 알려져 찾는 사람이 많으며, 그 품이 너무도 넓고 깊어 청정하고 수려한 경관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주변에는 흑돼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들도 있어 물놀이와 미식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다.

또, 뱀사골, 달궁, 덕동으로 이어지는

계곡 주변에는 각종 펜션, 민박 및 넓은 주차장이 갖춰져 있는 야영장이 있어 가족 단위 캠핑도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예약되는 달궁과 덕동 야영장은 전기시설이 있어 야영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부대시설로 화장실, 급수대, 매표, 나무 테이블 세트, 쓰레기 분리수거대 등 기본 편의시설도 잘 관리돼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남출/기자



남원시



“함께 읽어요” 나누시, 올해의 책 4권 선정

어린이·청소년·문학·비문학 장르 추천 후 시민 선호도 조사

전라남도 나누시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의 책' 4권을 선정했다. 나누시는 2023년 올해의 책에 '거짓말의 색깔', '페퍼민트', '아버지의 해방일지',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의 책 선정은 지난 4월 시민과 각급 학교, 관련 전문가, 기관 등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문학·비문학 장르 도서 추천을 통해 이뤄졌다.

총 79권의 도서가 추천된 가운데 올해의 책 선정위원회는 분야별 후보도

서 3권을 압축했으며 온·오프라인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총 4권의 올해의 책을 최종 선정했다.

어린이 분야 '거짓말의 색깔'(저자 김화요)은 거짓말 속에 숨겨진 마음을 보는 아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아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다룬다. 거짓말이 눈에 보이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을 통해 거짓말에 담긴 마음을 작품에서 느껴낸다.

청소년 분야 '페퍼민트'(저자 백은유)는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엄마를 간

병하는 주인공 '시안'을 통해 가족과 돌봄의 무게, 나아가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진다. 혼란스러운 가치, 생각들이 가득한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작품이다.

문학 분야 올해 책으로 선정된 '아버지의 해방일지'(저자 정지아)는 '전직 빨치산' 아버지의 죽음 이후 3일간의 시간만을 현재적 배경으로 다룬다. 해방 이후 1970년대 현대사의 질곡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비문학 작품인 '지구는 괜찮아, 우리

가 문제지'(저자 광재식)는 기후 위기는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닥친 현실임을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고 알차게 알려준다. 기후변화가 피부로 직접 전해지는 시대에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기후 상식과 정보를 흥미롭게 말해주는 책이다.

나주시는 올해의 책 선정과 연계해 시민 모두가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한다.

올해의 책 4권을 시민이 가까이 읽을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 각급 학교, 지역아동센터, 행복복지센터 등에 배부·비치하고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계획 중이다.

김영만/기자



전북도, 제1회 농생명산업대상 후보자 접수

지속가능 농어업, 활력있는 농어촌, 미래먹거리 농생명 3개 분야 우수 농어업인·단체 등 시상

전북도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세운 농어업인·단체 등 숨은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기 위해 제1회 전라북도 농생명산업대상 후보자를 9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전라북도 농생명산업대상은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제고와 농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으로, 작년까지 삼락농정 대상으로 시상하다 올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됐다.

시상분야는 지속가능 농어업, 활력있는 농어촌, 미래먹거리 농생명 3개 분야로 지속가능 농어업 분야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공헌한 자, 활력있는 농어촌 분야는 농어업인 삶의 질과 농어업·농어촌 가치제고를 위해 공헌한 자, 미래 먹거리 농생명 분야는 식품 소재 등을 기반으로 기술·산업 간 융합을 통해 농생명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법인·단체 사무소 관할 시군 농업부서에 접수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차 예비심사, 현지확인을 거친 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생명산업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전북도지사 명의의 메달과 상패를 수여하고 농식품인력개발원 영농·영어교육 강사 우선 위촉 및 전북119안전체험관 등 일부 시설의 사용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농어업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포상함으로써 농생명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한편, 수상자는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 발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강진원 강진군수, 경로당 방문... 어르신 건강 살펴

폭염 및 호우 대비 당부, 주민 의견 적극 검토 약속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7일, 병영 여자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운영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 안내 및 시설 점검을 갖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 군수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운영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경로당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낯스런 야외활동 자제와 함께 무더위 쉼터를 활용해, 폭염을 이겨낼 것을 당부했다.

강진군은 경로당 등 어르신 주요 이용시설 점검을 통해 에어컨 등 냉방시설 가동현황 및 고장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비한 시설에는 냉방기 수리 및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오후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면서, 강 군수는 여름철 갑작스러운 호우시에도 외출을 삼가고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 정보 등 행동요령을 안내해, 운영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건의하신 시설 증축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유휴공간 활용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및 읍면과 연계한 어르신들에 대한 안부살피기를 강화하고,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해, 시설을 점검 및 폭염 대비 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밖에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부담 감소를 위해 341개소의 경로당에 개소당 30만 원의 긴급 냉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윤호/기자

완도군, 해수욕장 3개소 블루플래그 인증 획득 쾌거

아시아 최초 신지 명사십리 5년 연속 우수 해수욕장 인증,보길 예송 3년 연속, 청산 신흥 파일럿 인증



완도군이 지난 4일 환경교육재단(FEE)으로부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보길 예송 해수욕장, 청산 신흥 해수욕장에 대한 '블루플래그'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환경교육재단 국제

본부 CEO인 다니엘 셰퍼가 직접 참석하여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블루플래그' 인증서와 깃발을 전달했다.

'블루플래그'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환경교육재단(FEE)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으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국내 최초로 5년 연속, 보길 예송 해수욕장은 3년 연속 인증하는 기록을 세웠다.

청산 신흥 해수욕장은 블루플래그 파일럿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한 해수욕장이 3개소인 곳은 국내에서 완도군이 유일하며, 특히 신지 명사십리의 5년 연속 인증 획득은 아시아 최초이다.

또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우수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Special Mention' 상을 받았다.

우수 해수욕장은 전 세계 5,000여 개 해수욕장 중 10개소만 지정되기 때문에 수상의 의미가 크다.

올해 블루플래그 파일럿 인증을 획득한 청산 신흥 해수욕장은 물이 깨끗하고 파고가 낮아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평가받았으며, 썰물 때 드러나는 수만 평의 은빛 고운 모래사장에서 해초와 조개를 줍는 생태 체험도 할 수 있다.

또한 인근 해송 숲에 위치한 해양치

유공원에서는 스마트 치유, 해수 미스트 치유, 소리 치유, 향기 치유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치유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블루플래그는 UN 산하의 세계관광기구,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UNESCO 등 국제기구 대표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수질, 안전 관리, 환경 교육, 친환경 시설의 4개 분야에 대해 심사한다.

29개의 평가 항목과 137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해수욕장만이 블루플래그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해양치유 시설이 위치한 해변에서는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을 시설과 자연의 친환경성,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은 여는 해변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이 완도에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 획득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근수/기자

신안군 섬 민어 축제 무더위 속에 대성공!

여름 보양식 민어 맛보러 관광객 몰려

신안군은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섬 민어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제15회 섬 민어 축제'는 무더위 속에서 신안 민어를 맛보기 위해 1,200여 명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고, 민어 건장 주먹밥 요리 시연·수산물 깜짝 경매·민어 해체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임자 고등학교 김소향 학생의 "민어가 들어주는 바다 이야기" 낭송은 청정한 바다 보존에 대한 경각심과 자정선언문을 통해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임자 해역에서 잡히는 민어는 전국의 미식가들이 맛을 보고 싶어 하는 신안의 주요 수산물로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이며,

"이번에 열리는 축제에서 신안 민어를 맛보고 드넓은 임자 대광해변을 보며 잠시나마 관광객들의 더위를 식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안군은 5월 홍어, 깡다리, 낙지 축제 6월 병어, 간재미 축제, 8월 민어, 9월 불볼락, 왕새우, 우럭, 10월 새우젓 등 계절에 가장 맛있고 많이 잡히는 시기에 맞춰 지역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공모사업의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등

진도군이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8일 조상필 전남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초청해 '공모사업 효율적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모사업 유치 필요성과 중요성 ▲공모사업의 개괄·공모절차상 고려사항 ▲진도군의 대응 전략

등으로 전남도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을 통해 공모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응모·선정·사후관리 등의 방향 제시와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활용한 알기 쉬운 설명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군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지

난 1일에는 '국고건의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보고회'를 개최해 국비확보와 공모사업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응모로 공모사업의 적기 발굴과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며 "중앙부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진



도군미래전략위원회와 국비확보 TF를 구성해, 보다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2022년 공모사업으로 48건, 3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2023년 7월말은 공모사업 40건, 582억원 사업비를 확보, 전년 대비 164%가 증가했다.

김영진/기자

구례군, 2023년 해피드림 문화체험 추진

8개 읍면 어르신 각 30명, 노인대학생 50명, 장애인복지관 30명 순차적으로 구례자연드림파크 문화체험

구례군은 지난 4일 구례읍 참여자 30명을 시작으로, 320명(8개 읍면 어르신 각 30, 노인대학생 50, 장애인복지관 30)의 지역 내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에게 8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나눠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한다.

해피드림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유정란·만두 공방 견학, 최신 영화관람, 레스토랑 식사 등으로 이뤄지며, 구례군에서는 차량 지원과 인솔을 책임지고,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는 후원금과 체험활동 장소를 제공한다. (사)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에서는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문화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한다.

김순호 군수는 "해피드림 문화체험 활동이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례자연드림파크와 (사)대한노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며, 이밖에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화순군, 8월 19~20일 제20회 전국국악대제전 개최

전국의 국악 명창 명인, 신인 발굴 등용문

화순군은 (사)화순국악진흥회가 주관하는 전국국악대제전이 오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화순군 하니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전국국악대제전은 예로부터 예향의 고장으로 수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한 유서 깊은 소리의 고장인 화순에서 국악을 계승하며 국민의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국악 발전의 주역이 될 재능있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순은 지금까지 김동준, 김일구, 박송희 등 헤아릴 수 없는 거장들이 나고 자란 지역이다. 그 맥을 잇기 위해 이곳 출신인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심청가 보유자 김향순 명창이 전국국악대제전을

주관하는 (사)화순국악진흥회의 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향순 명창은 선생님들의 대를 이어 해마다 화순 전국국악대제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본 대회에 전국의 국악인들이 참가하여 이 지역 화순을 알리는 데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전국국악대제전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했으며 8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부와 신인부는 무료, 일반부는 참가비 5만 원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19일 오전 9시 예선전을 시작으로 판소리, 기악, 민요, 무용, 고백 5개 분야에서 경쟁이 펼쳐지며, 본선은 20일

예선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오전 9시에 치러지고 오후 2시 40분부터는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국무총리상, 문화체육부 장관상, 교육부장관상, 전라남도지사상, 화순군수상, 화순군회의의장상 등 영예의 상장과 함께 최대 3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김향순 회장은 "이번 화순 전국국악대제전을 통해 여러분의 구성진 가락이 대한민국 곳곳에 널리 울려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국악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



이다."라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 또한 "화순에서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전국국악대제전이 꾸준히 열려 훌륭한 인재를 발굴되고, 예향의 고장이라는 명맥을 이어 나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올해도 전국의 국악 인재들이 많이 참가하여 국악 실력을 뽐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경북 북부지역 고추 탄저병 발생 급증, 끝까지 철저히 방제!

탄저병 피해과율 6%로 전년 대비 큰 폭 상승, 적기 약제 방제 당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 북부지역 고추 주산지 6개 지역(영양, 안동, 봉화, 예천, 청송, 의성) 140농가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이틀간 생육후기 작황을 조사한 결과 탄저병 발생률이 크게 증가해 수확이 끝날 때까지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탄저병은 고추 과실에 발생해 수량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병으로 발병 초기에는 어두운 초록색에 오목하게 들어간 점이 생기고, 진전되면 둥근 검무늬 모양의 병징이 나타난다.

8월 상순 탄저병 피해과율은 6%로 전년도 피해과율 0.1%, 평년 피해과율 0.3%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올해 고온다습한 환경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특히 6~7월 강수량이 693.1mm로 많은 비가 내려 탄저병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약제 살포

전 탄저병 과실을 제거하고, 제거한 피해과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이후 등록약제를 안전사용지침에 따라 7~10일 간격으로 연속 살포해야 한다.

특히, 피해과가 보일 경우 탄저병 치료용 살균제(작용기작 번호:다3, 사)를 함께 사용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

한편, 탄저병과 담배나방은 발생시기 가 비슷해 동시방제가 중요해, 8월 하순까지 두 가지 약제를 열매 표면에 골고루 묻도록 살포하고, 농약회사 홈페이지나 홍보책자에 안내된 작물보호제 혼용가부표를 참고해 안전하게 방제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올해는 많은 강우로 인해 탄저병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피해과 제거, 적기 약제 방제를 통해 탄저병의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30세계박람회 개최부지 사업 착수를 위한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 지정

지난 4일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로 부산시 컨소시엄(부산시, 부산항만공사) 지정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10.) 이후 북항 2단계 사업 본격 시동
 부산시 주요 도시미래비전 제시/2030세계박람회 개최 연계 위한 전략 수립 용역중
 박형준 부산시장,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가시적 성과 도출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 당부해

부산시는 지난 4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부산시 컨소시엄인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10.) 이후 2030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시가 '부산시 컨소시엄' 기관 중 현시점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를 사업시행자로 먼저 지정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공식 요청한 결과이다.

이로써 북항 2단계 사업계획, 실시계획 수립 등 관련 용역 추진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사업 착수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컨소시엄 기관들(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은 연내 내부의사결정 등을 이행한 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3개 기관은 2030세계박람회 개최와 북항 2단계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사업계획/실시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안으로 내부의사결정 등을 이행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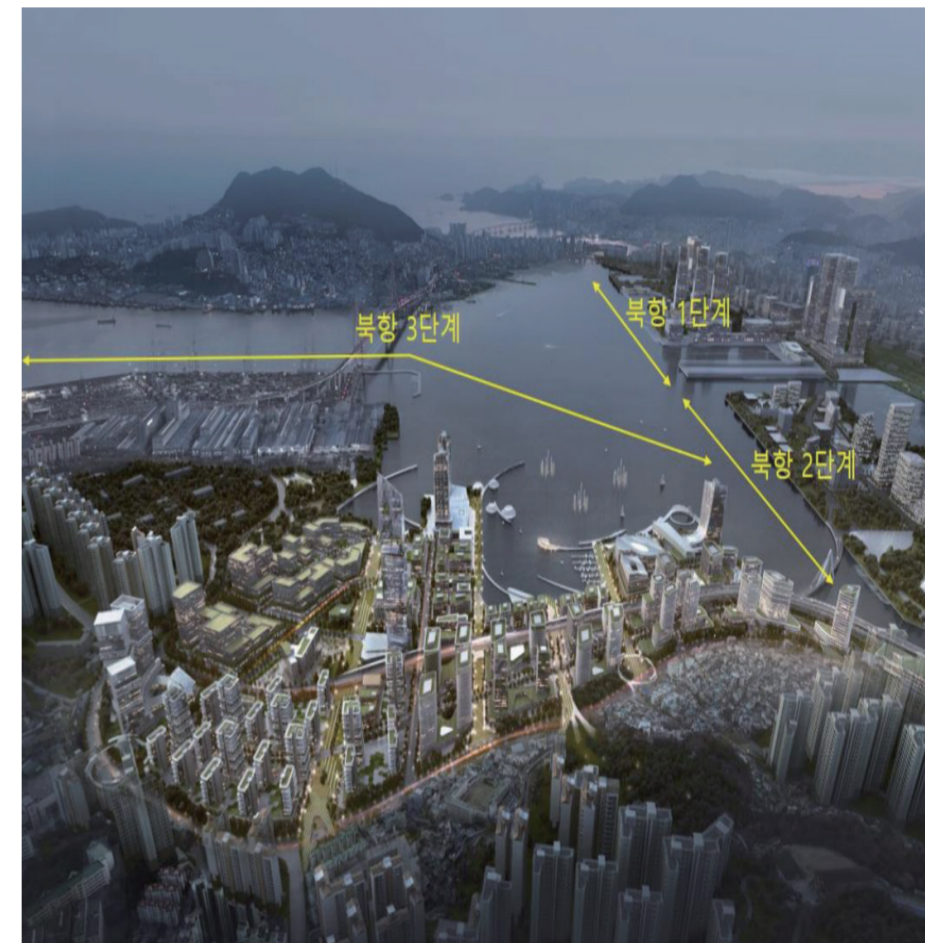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시는 주요 시정사항을 담은 도시미래비전 제시 및 2030세계박람회 연계 통합방안 검토 등 시민과 함께하는 북항 2단계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용역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북항 2단계 사업에 '부산시 컨소시엄'(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며,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암·감만동을 대상으로 하는 북항 3단계 항만재개발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제19회 대구북구사랑 마라톤대회 참가신청 시작!

10월 15일(일)금호강 산격야영장 일원에서 열려
 참가 신청, 지난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선착순 접수해

제19회 대구북구사랑 마라톤대회가 10월 15일(일) 금호강 산격야영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참가 신청은 지난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대회부터 새롭게 도입된 북구 금호강변 코스에서 개최되며, 대구북구체육회 홈페이지(http://www.dbsfa365.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10km 2만원, 5km 1만원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대회기념 티셔츠를 제공하고, 모든 완주자에게 완주 메달을 수여한다.

대회 당일인 10월 15일 오전 9시 15분 전행사 및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금호강 산격야영장에서 10km, 5km 순서로 출발하며, 금호강변 마라톤 코스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북구체육회와 북구청에서는 금년도 대회 규모를 1,300명으로 확대하고,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대회 구간인 금호강변 자

전거 도로 및 산책로[성북교 하단 ⇄ 산격야영장 ⇄ 압로정(검단동)]을 대회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2시간 30분 정도 전면 통제함에 따라 해당구간을 지나는 자전거 및 보행자는 우회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북구청 체육회(☎053-958-0660)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죽변면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울진군은 오는 8월 31일부터 죽변면도서관에서 '인문학 예술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연을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넓혀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금강송 숲길 탐방과 후속 모임 등 참가자들의 소통을 이끄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단편적인 강연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문학 예술 테라피'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북면 흥부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탐방과 후속 모임은 별도 일정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울진군통합도서관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lib.uljin.go.kr) 또는 죽변면도서관(054-782-1874)에서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순번복 울진군수는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여,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신품종 포도 '레드클라렛' 상주에서 첫 수출

새로운 소비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 기대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경북 육성 포도 신품종 시범수출 및 현장평가회'를 8월 7일(월) 포도 재

배 농업인, 수출업체, 도·시군 관계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 서상주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평가회는 경북 육성 포도 신품종의 우수성 홍보와 수출 시장 선점, 로열티 경감 및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경북 육성 포도 품종 '레드클라렛'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품종 평가 및 시식, 시범수출 선적식, 재배현장 견학, 마케팅 전략 수립 관련 의견 수렴 등 현장감 있는 평가회가 이루어져 농업인 등 관련 단체의 반응이 뜨거웠다.

한편, '레드클라렛' 품종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당도가 20브릭스 이상이며 맛이 좋고, 속기가 빠르다. 또한, 과육이 아삭한 적색 포도로 착색이 용이하고 향산화 물질이 풍부해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한 소비자 선호형 품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베트남, 홍콩, 중국 등에서 붉은색은 행운과 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사인머스켓과 같은 녹황색 품종과는 다른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보급과 김정수 과장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적색 포도로 새로운 소비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상주 포도가 소비자가 만족하고 맛있다는 임소문이 날 수 있게 적정 송이 크기, 적정 수량을 착과시켜 고품질 생산에 힘써달라"고 하였다

김동현/기자

김천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4년 연속 수상

경북도내 유일 2관왕, 인센티브 7천 5백만 원 수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2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 및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 우수 단체를 평가하고 선정·시상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일자리 상이다.

김천시는 2020년도 목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 2021년도에는 우수상, 2022년도 특별상에 이어 올해에는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을 받으며, 도내 유일 2개 부문,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와 함께 인센티브 7천 5백만 원을 확보했다.

김천시는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2022년 공통 일자리 실적으로 고용률(15세~64세) 70%(목표 대비 100.5%), 취업자 수(15세 이상) 79,400명(목표 대비 100.7%),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46,196명(목표 대비 101.6%)으로 각각 애초 목표 대비 100% 초과 달성하여 고용노동부 기관 표창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김천시는 2대 핵심과제로 '지역 청년의 실업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더하기'를 지정하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취약계층 및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김천 1 일반산업단지 3단계 준공 전 100% 분양 완료와 4단계 조성 사업 도입에 따른 연간 4,8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앙부처와 긴밀한 연계 협업을 통한 미래 전략사업을 발굴·유치하는 등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심사위원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사업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안우영)에서 추진한 성공 취업을 위한 물류 전문가 양성사업이 지역 고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특색 있는 고용 창출 모델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4년간 전국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정책을 잘 추진했던 만큼 앞으로도 청년, 신중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구직자와 기업을 위한 특색 있는 김천형 안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통합 직제 규정을 개정하여 2023년 7월 1일 자 정гийн

사에서 일자리경제과 내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맞춤형 인력지원을 전담할 기업인력지원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기업인력지원팀은 산업단지 내 기업체 필요 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일자리를 매칭하고, 취업 상담 방문 운영 기관의 특성화고, 대학 등을 방문하여 김천지역 우수 기업체 소개 및 구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각종 수상에서 김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4년 연속 수상 외에도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2021년도 대상' 및 '2022년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해 일자리정책에서 괄목할만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현/기자



백신산업의 메카안동, 글로벌인력양성허브로도약!

보건복지부,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경북 안동' 선정



정부는 백신 치료제 주권 확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통해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등 국가 R&D 확대, 바이오 거점 중심의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및 백신산업 계열화를 통해 바이오·백신산업을 육성하고자 "바이오·디지털헬스 중심국가로 글로벌 중심국가로

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경북도는 국정과제에 맞춰 백신·바이오산업 거점 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백신산업 클러스터 최적지 안동 선정!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22년 2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에 한국을 단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 교육과 훈련을 맡는 '글로벌 바이오 메인캠퍼스'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경북 안동이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에 지난달 7일 최종 선정됐다.

안동은 경북바이오 지방산업단지 내 연구개발(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비임상지원(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임상시료생산(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선도기업(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 까지 1천500억 원을 투자해 mRNA, 차세대 바이러스 벡터 등 신규 플랫폼을 구축중이며 KTX 중앙선 개통('21) 및 대구경북고속도로 개통('30) 예정으

로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백신산업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자부하고 있다.

또 안동대 백신생명공학과는 현장 중심 백신공정 인재 배출을 목표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산학 연계를 통한 기업들의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백신산업 전문 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안동 백신클러스터는 연구기관 - 비임상 - 임상 - 상용화 - 전문인력 양성 전주기 지원체계가 구축돼 있어 기업과 연구소가 집적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와 연계한 백신 관련 연구소와 기업 유치로 백신, 바이오산업 중심의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해 지방시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 소방본부,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

기온 상승으로 벌 활동이 왕성해지는 여름철 사고 집중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 '벌 쏘임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말벌 등의 활동으로 위협을 느끼거나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히 119로 신고' 당부해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도민들에게 말벌 등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여름철 벌 쏘임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경북도내 벌 쏘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총 2,970건이 발생했다. 연도별 도 살피보면 2020년 826건, 2021년 914건, 2022년 1,230건이 발생해 벌 쏘임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명피해는 여름철에서 초가을 사이(7월에서 9월까지)에 집중 발생했는데 이 기간 동안 신고 접수된 인명피해 신고는 2,323건으로 총 발생 건수의 약 78%를 차지했다.

인명피해 건수에는 사망자가 3명(20년 2명, 22년 1명) 포함돼 있어 거의 매년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소방본부는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어두운색 계열의 옷보다는 흰색 계열의 팔다리를 노출을 최소화 하는 긴소매 옷을 입을 것을 권했다.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접촉할 시에는 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벌집으로부터 20m이상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벌은 단 성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탄산음료 등 달콤한 음료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시 대처 방법으로는 신속히 벌집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찜질로 통증을 완화시켜야 한다. 또 응급조치와 동시에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벌 독 알레르기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어지러움, 호흡 곤란 등이 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무더위로 인해 말벌 등의 활동이 다시 왕성해지고 있으니 벌 쏘임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말벌 등의 활동으로 위협을 느끼거나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히 119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특구 종료, 첨단 의료산업 신시장 창출

의료기기 인허가인증 획득 62건, 실증제품 시장 판매 개시 28건 규제 발목 잡힌 의료기업에 사업화 기회, 특구 내 신규고용 870여 명 창출 특구사업자 매출액 합계 780억 원, 투자유치 합계 400억 원 이상 달성

대구광역시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2019. 8. 9. ~ 2023. 8. 8.(4년) 추진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실증제품의 사업화, 인허가·인증·특허 획득 및 기업 고용·매출 증대 등 대구 첨단 의료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특구는 의료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 때문에 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현실에 착안해 시작된 사업으로, 그동안 규제에 발목 잡힌 의료분야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實證)'하고 '새로운 사업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특구의 4개 실증특례 주요 내용은 ①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실증 ② 인체 유래(由來)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③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④ 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으로 구성돼 있다.

4년간의 특구 운영을 통해 4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780억 원 이상의 매출액 달성, 직·간접 신규고용 870여 명(청년고용 60% 이상) 창출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또한 의료기기 인허가 인증 및 지식

재산(특허 출원 및 등록) 62건 획득, 실증제품 28건에 대한 시장 판매 개시 등 지역 의료산업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공적 기업 사례를 살펴보면, (주)멘티스는 특구 실증을 통해 해리어(HARRIER)라는 추가체유합보형재 제품을 개발해 '19년 매출액 40억 원을 기록하고 매년 유의미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나아가, '22년 6월에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신규사육과 생산시설을 확장 이전했고, '23년에는 매출액 70억 원(예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제나는 뇌파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정신건강 알고리즘 개발 및 AI 탑재 비접촉 IoT 헬스케어 키오스크 시제품(Altok)을 개발해 벤처 창업혁신 조달상품에 등록됐으며, '21년 KT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수출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 외에도 (주)트라이벨랩(의료용다기능측정기록장치), 원소프트다임(피트러스플러스 서비스), 헬스올(복합순응도 향상 서비스를 통한 스마트약 사업) 등도 상품 매출이 발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등 13.606km²

첨단산업지구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호산동, 달성군 다사읍 새천리 일원
혁신의료지구	대구시 북구 동내동 1번지 등
융합R&D지구1	대구시 북구 칠곡 경북대병원(동호동, 학정동) 일대
융합R&D지구2	경북도청후지(대구시 산격동 1008번지 등), 대구삼성정조캠퍼스(대구시 침산동 1757번지 등)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특구 실증결과를 토대로 한 법령 정비에 방점을 두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9월로 예정된 중기부 제9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 최은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장은 "국내 대표 의료·헬스케어 특구인 본 특구 운영 경험을 살려 의료분야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 의료산업 발전과 헬스케어 중심도시 대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계약재배 홍고추 수매 장려금 지원



봉화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인 지난 7일부터 9월 25일까지 고추종합처리장에서 출하양정을 체결한 173농가를 대상으로 600톤가량의 홍고추를 수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화군의 주요 소득 작물의 하나인 고추는 재배면적이 전국 3위로 1,045ha

에서 2,382농가가 재배하고 있다. 봉화군은 고품질 홍고추 출하를 유도하고 고추종합처리장의 안정적인 원물 공급과 봉화 고추 인지도 제고를 위해 총 2억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약재배 출하 농가에 kg당 400원의 홍고추 수매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는 불철 이상기온과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농작물 착량 및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김학동 예천군수, 수해지역 일상회복 위해 총력 주문

수해 피해 공공시설 대부분 응급복구 마무리 폭염·코로나 확산 대비 시설점검·안전수칙 준수 태풍 '카눈' 대비 수해현장 등 점검,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 강조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난 7일, 간부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로 인한 응급복구가 대부분 마무리된 데 이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군수는 간부회의에서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못한 실증자로 안타까운 마음이

며 하루빨리 실증자를 찾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각의 노력 끝에 응급복구가 마무리를 향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복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경찰, 기관·단체, 시민, 전국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복구와 봉사활동에 참

여한 분들과 수해복구 성금·물품을 기탁한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시설 확정을 위한 공공시설물 파악 및 항구복구를 위한 중앙부처 합동조사반 조사는 물론, 지난 6일까지 사유시설(주택, 농작물, 농경지) 침수·유실 등 피해조사를 위한 꼼꼼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피해신고 누락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김 군수는 "앞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피해를 본 분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재난 심리회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빠지지 않고 제공하며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연재해로 발생한 크나큰 피



「2023 안동시 낙동강 스탠드업 패들보드 대축제」 개최

안동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안동시요트협회에서 주관하는 「2023 안동시 낙동강 스탠드업 패들보드 대축제」가 지난 8월 6일 안동시 낙동강 버들섬 주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스탠드업 패들보드(SUP)는 보드 위에 두발로 일어서 패들을 저어 앞으로 나아가는 스포츠이다. 바다, 강, 호수, 잔잔한 물 또는 파도에서도 모두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최근 급격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

대회 당일인 8월 6일 사전 신청자 및 당일 신청자 등 총 1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하는 등 열띤 참여 열기 속에 진행됐다. 또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개장에 맞춰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패들보드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해 200여 명의 안동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

안동시요트협회는 앞으로 스탠드업 패들보드 종목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지역의 동호인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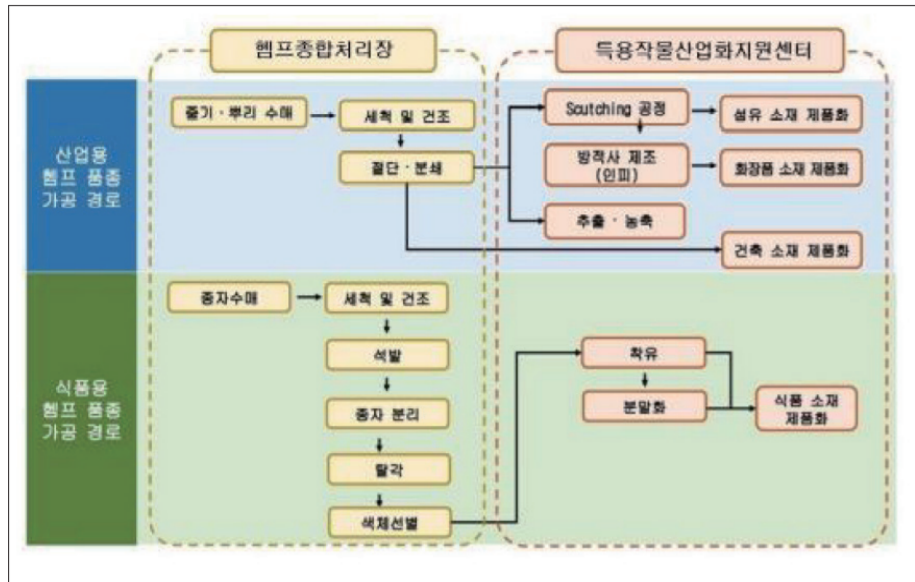
안동시 관계자는 "스탠드업 패들보드라는 색다른 종목을 통해 많은 안동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색적 체험을 즐기며 좋은 추억을 쌓았다"며 "앞으로도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해 방문객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헴프생산기반조성으로 산업화 '박차'

전국 유일 헴프 공모 2개 사업 선정, 국비 55억 원 확보 헴프 생산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고소득 대체작목 육성 기대



경북도는 2023년도 국비 공모사업인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과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하 '클러스터')에 안동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의 적정성, 부지확보 및 입지조건, 사업운영주체, 지자체 정책 연계방안 등을 종합

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안동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센터와 클러스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하에 헴프 생산 기반 확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는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클러스터는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 지방비 25억원)을 투입해 안동 풍산읍에 소재한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 2개 사업 부지를 연접해 각각 3,000㎡ 규모로 조성한다.

센터는 헴프 연구분석, 제품 개발 연구시설과 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게 되며 클러스터는 종실·섬유용 헴프 재배장비, 가공시설 등을 구축한다.

클러스터에서 헴프 원물을 수매해 세척·건조, 절단·분쇄 및 탈각 등 기초 공정을 거친 후 센터에서 용도별로 추출·농축, 분말화 등의 공정을 거쳐 섬유·화장품·건축·식품 소재로 제품화 할 계획으로, 향후 시설 구축 후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해 위탁 운영한다.

한편, 국산 헴프는 주로 식품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장품, 동물용 사료, 건강기능식품 소재 용도로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착유한 오일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입품이 월등히 저렴하지만 운송

과정에서 산패·식품 안전성 문제가 있어 현재는 국산 오일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도는 2022년 말 기준 180농가에서 87ha를 재배하는 헴프 주산지로 전국 재배면적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헴프 재배의 집산화·기계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고소득 대체 작목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주령 국장은 "헴프는 수입산과 가격 경쟁력에서 2~3배 이상 높아 단순 가공 보다는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사업으로 발전하면 충분히 시장경쟁력이 있다"면서, "헴프 우수성과 잠재가치를 최대한 발굴, 농가 소득 증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헴프(Hemp)는 항정신성 물질인 THC(Tetrahydrocannabinol) 함량 0.3% 이하의 대마 품종으로, 한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산업용 소재로 이용되는 것이다.

윤근수/기자



'생수 제공, 살수차 운영'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무더위쉼터 24시간 개방, 취약계층 6400여 가구 냉방비 긴급 지원

박남서 영주시장,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 당부

경북 영주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재난안전·복지 관련 부서 및 19개 읍면동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관내 165개소의 무더위쉼터 내 냉방시설(에어컨, 선풍기 등) 작동여부,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안전교육을 연계 추진하고 부채, 쿨도시, 쿨스카프 등 폭염피해 저감 홍보물 배부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방문보건인력,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운영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8일부터 폭염특보 발효 시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시내지역 주요 구간에 살수차 3대를 운영한다.

인구밀집지역 내 횡단보도 등에도 폭염대비 그늘막(스마트그늘막 포함) 37개소를 설치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활동 자제 안내문자 발송과 마을방송 등 다양한 피해방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5개소에 냉방기와 생수를 비치해 이용객들에 제공한다.

한편, 박남서 영주시장은 8일 관내 폭염 취약 가구의 주거환경을 점검한 후, 스마트 승강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며 폭염에 따른 고충 등을 청취했다.

앞서 4일에는 예비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6400여 가구에 냉방비 5만 원 긴급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중 복지급여지급계좌 등으로 받게 된다.

박남서 시장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한낮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로ON' 모바일 앱 하나로 경주여행 한번에 끝낸다

9.13일 '경주로ON' 모바일 관광 앱 정식 출시 계획

교통·숙박 예약에서 맛집 검색까지 모바일 앱 하나로 경주 여행이 가능해졌다.

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본격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알렸다.

보고회에는 주낙영 시장, 도·시의원, 한국관광공사 및 경북도 관계자, 컨소시엄사,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사의 구축 성과 발표와 앱(APP) 기능 시연, 향후계획 보고, 질의응답 및 발전 방향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아날로그적인 관광도시에서 디지털 기반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70억 원의 예산을 스마트 관광 5대 요소에 적용한 경주시의 전략사업 중 하나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본격적인 개발 착수 후 1여 년 간의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 13일 출범식 개최와 함께 '경주로ON'이라는 모바일 관광 앱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경주로ON'은 여행자 누구나 통합 관광 플랫폼을 통해 여행 준비 단계부터 여행 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앱으로 스마트 서비스(AI 기반 다국어, 오디오 가이드), 스마트 모빌리티(KTX, 시티투어, 렌터카 예약·결제), 스마트 오더(숙박, 식당, 체험, 티켓 등 연동), 스마

트 편의(AR상점스캔, 도슨트투어(증강현실 전시물 설명)), 스마트 경험(게임미피케이션(게임요소 점목), 미디어월(입체형 LED)) 등의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 주민사업체 누구나 쉽게 상품을 앱에 올리는 등 혁신적 판매 시스템을 통해 매출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더불어 시는 향리단길 생활문화센터, 대원원, 신경주역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여행자 라운지에는 '경주로ON'과 연동되는 디지털사이드(움직이고 소리 나는 영상), 짐보관 서비스, 포토부스 설치, 북카페 등으로 편리하고 안락한 커뮤니티 공간도 제공한다.

특히 중심상가에서 음성으로 연결되는 지점인 KT 사옥에 설치되는 미디어월은 황금공방, 천상의 세계 등 5개 테마가 착시현상을 이용해 입체감과 공간감 구현으로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낸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만의 관광문화 유산과 최신 여행 트렌드가 공존하는 관광혁신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경주로ON 오픈 이후 시범기간 동안 관광객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를 더 편리하게 관광하고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의성眞 복숭아, 말복 이벤트 실시

김주수 의성군수, "지역 농산물에 대한 홍보전략을 더욱 다각화하는 계기로 삼아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 및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의성군은 말복을 맞이하여 국내 대표 온라인 유통플랫폼인 SSG닷컴에 "의성眞 복숭아 말복 이벤트"를 의성 거점 APC 주관(본부장 신화경)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번달 7일부터 말복인 10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SSG닷컴을 통해 의성眞 복숭아를 구매할 시 포장박스 내 동봉된 스크래치카드를 통한 일련번호 추첨으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여 브랜드를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에 준비한 이벤트를 통해 의성眞 복숭아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그 밖의 지역 농산물에 대한 홍보전략을 더욱 다각화하는 계기로 삼아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 및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전남도의회, 고수온·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사전 현장점검

강진 양식장 어망관리 등 사전대비부터 복구까지 분야별 선제 대응에 만전 당부



신익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8일 태풍(제6호, 카눈) 북상으로 남해안 냉수대가 소멸함에 따라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북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을 살피고 어업인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이날 전북 양식장을 찾은 신익준 위원장은 양식어장 고수온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 액화산소 사전 공급, 양식 밀도 낮추기, 고수온 대응 장비 준비, 차광막 설치 등 양식장 관리 요령에 따른 양식생물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상변과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전북, 남치 등 양식시설물과 수산생물에 대한 재해복구 단가는 수년간 동결돼있다”고 지적하고 “실거래 가격의 50%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대응반을 설치 운영하고 시군합동 현장 예찰 강화를 비롯해 고수온 대비 입식 신고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등 고수온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와 양식피해 현장에서 전북, 우력 등 가두리양식장에 반복해 발생하는 고수온 피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박종배/기자

“생수 제공, 살수차 운영”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무더위쉼터 24시간 개방, 취약계층 6400여 가구 냉방비 긴급 지원

경북 영주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재난안전·복지 관련 부서 및 19개 읍면동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관내 165개소의 무더위쉼터 내 냉방시설(에어컨, 선풍기 등) 작동여부, 청결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안전교육을 연계 추진하고 부채, 쿨도시, 쿨스카프 등 폭염피해 저감 홍보물 배부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방문보건인력, 자율방재단 등을 통해 ‘재난도우미’를 운영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8일부터 폭염특보 발표 시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시내지역 주요 구간에 살수차 3대를 운영한다.

인구밀집지역 내 횡단보도 등에도 폭염 대비 그늘막(스마트그늘막 포함) 37개소를 설치했으며, 폭염특보 발표 시 야외활동 자제 안내문자 발송과 마을방송 등 다양한 피해방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5개소에 냉방기와 생수를 비치해 이용객들에 제공한다.

한편, 박남서 영주시장은 8일 관내 폭염 취약 가구의 주거환경을 점검한 후, 스마트 승강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며 폭염에 따른 고충 등을 청취했다.

앞서 4일에는 예비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6400여 가구에 냉방비 5만 원 긴급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중 복지급여 지급계획 등으로 받게 된다.

박남서 시장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한낮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나주시,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선제적 점검·대응

윤병태 시장 주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상황 판단 회의

전라남도 나주시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예찰과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재난 대응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나주시는 8일 오전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 주재로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제6호 태풍 카눈 대응 상황판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8일 현재 강도 ‘강’(중심최대풍속 35m/s)으로 10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제주, 전주 방향으로 북진할 전망이다.

나주시지역은 10일 오전 10시께 태풍이

최근접(130km) 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중이었던 윤병태 시장은 이날 시청사로 복귀해 재난 대응 부서장과 관계기관을 비상 소집,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하며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 대응을 주문했다.

윤 시장은 “현재 태풍 경로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갑작스러운 폭우와 강풍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시는 태풍 예비 특보발령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시는 하천변·둔치주차장 등 위험지역

을 수시로 살피고 하천 수위 상승 등 위험징후가 있을 시 신속한 사전 통제에 나선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 지역, 숲길·돌레길 등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위험징후 발생 시 즉각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소방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또 침수 이력이 있는 도로, 도로변 우수받이, 맨홀 등 이물질 제거와 강풍에 취약한 대형 크레인, 간판, 그늘막을 비롯한 낙하 위험물 고정·제거에도 꼼꼼을 기한다.

태풍 특보 시 개울가, 하천, 둔치 주차

장 등 상습 침수구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은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한다. 급격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김영안/기자



경북도, 태풍 대비 농업용 저수지 긴급 합동안전점검 나서

김주령 국장,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중인 저수지 안전실태 현장 점검

경북도는 8일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농업용 저수지 9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도는 이날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난 7월 9일부터 19일 장마기간 동안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강우량이 많았던 북부지역(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예천, 봉화)의 저수용량 3만톤 이상과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저수지 제방 균열·누수 및 물넘이·방수로, 기타 구조물 손상 여부 등을 점검했다.

경북도는 이번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전기탑사에 따른 제방 누수 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필요 시 응급보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시군에서 제방누수가 의심된다고 신청한 3개소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추가 지원을 받아 누수 전기탑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지난해 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인 경주의 왕신 저수지와 권이저수지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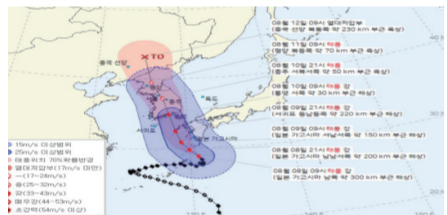
현장에서 안전조치 사항을 꼼꼼히 재점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 철저한 저수을 관리와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전방류를 통한 수위 관리와 노후저수지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태풍 ‘카눈’ 북상에 선제적 대비 태세 돌입

취약시설 785곳 전수 점검, 사면붕괴 위험지역 대피시설 정비



경주시가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초기 대응단계에 돌입했으며, 태풍 예비특보 발표 즉시 13개 협업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취약시설 전수 점검, 긴급대피 장소 확인, 강풍 피해 우려 시설물 등 결박 이동 조치, 정전·통신 두절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유지, 긴급복구 등을 위한 장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사전 대응에 나선다.

먼저 시는 산사태 취약시설 444곳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303곳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38곳에 대해 배수시설과 사전점검 예찰활동 등을 강화한다.

여기에 사면붕괴 및 침수위험지역 주민 139세대에 대한 주민대피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비상 시 주민대피를 위한 차량배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피 지원책을 수립한다.

특히 덕동댐, 안계댐, 감포댐, 왕신지, 권이지, 화곡지 등 댐·노후저수지에 대한 상시 예찰을 강화하고 유사 시 하류주민들을 대피시킬 계획이다.

강풍 피해를 대비해 415척 어선 육상 인양 및 피항 조치와 비닐하우스, 축사,

과수 시설 등에 대해 고정·결박 조치한다. 또 불법 현수막, 그늘막은 물론 옥상·돌출간판에 대해서도 정비·결박한다.

둔치 주차장 2곳, 지하차도, 세월교 등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지역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 경찰 등 협업체계도 강화해 긴급복구 및 피해예방을 위한 24시간 비상 대기 태세를 유지한다.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과 홀몸어르신 등 재난취약세대는 지역 이·통장과 협력해 신속히 대피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전·통신 두절에 대비해 관련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도 유지한다.

사전 대비책뿐만 아니라 긴급복구를

위해 백호, 덤프, 크레인 등을 보유한 지역 중장비 업체와 협의해 신속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재난문자, 옥외전광판, 마을방송, 예·경보시설 등을 활용해 수시로 시민행동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각 부서에서는 모든 재해우려지역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소방 등 기관별 협조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태풍 내습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취해달라”고 전했다.

윤탁용/기자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물러가라!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Refresh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청송군은 일상에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 생태힐링관광의 대명사입니다.

리셋으로 리프레시!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강원도, 정전 70주년 기념 DMZ 학생미술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디제트박물관(DMZ박물관)은 오는 8월 12일부터 '제11회 DMZ학생 미술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및 'DMZ 학생미술공모전 대상 수상작 전(展)'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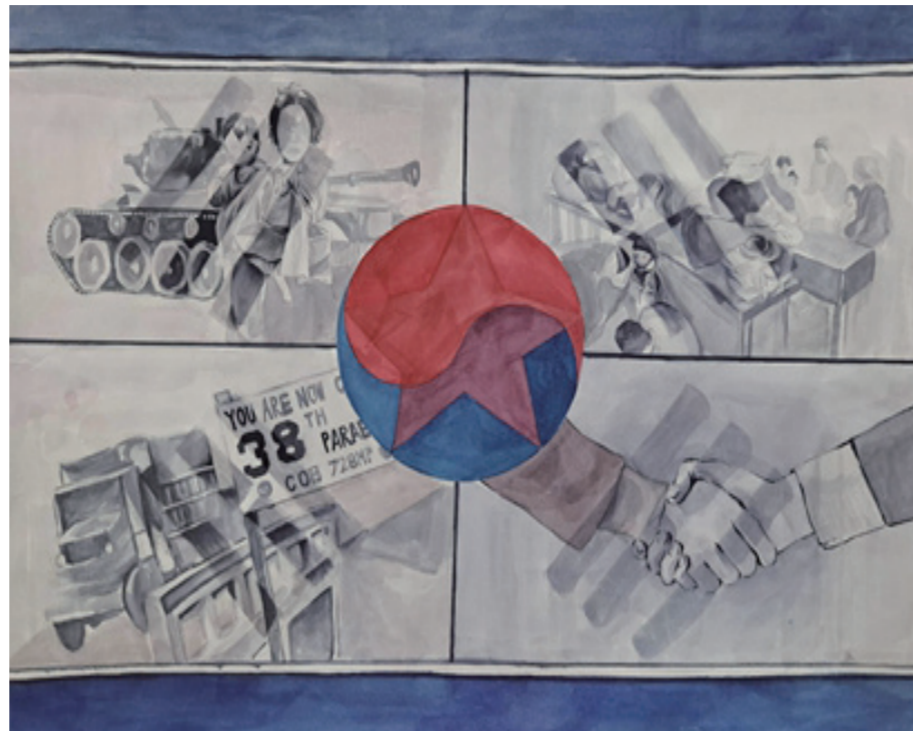
디제트박물관(DMZ박물관)은 어린이·청소년의 미술 활동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쟁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를 평화, 통일의 상징으로 미래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정전 60주년인 2013년부터 매년 'DMZ학생미술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올해 공모전은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비무장지대(DMZ)를 주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은지(왕신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의 '분단과 통일'이 대상(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모두 198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정전 70주년 기념 전시는 박물관 내부와 야외로 나누어 진행된다. 박물관 내부의 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정전 60주년인 2013년부터 정전 70주년인 2023년까지의 역대 대상 수상작을 모두 모아 캔버스 액자 형태로 제작하여 특별전이 진행되는데, 올해 10월 30일까지 전시된다.

박물관 외부의 야외전시장에서는 올해의 수상 작품 199점을 전시하며, 실제 비무장지대에서 남방한계선으로 쓰였던 오래된 철책에 걸개그림 형태로 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전시된다.

비무장지대를 테마로 한 세계 유일의 박물관인 디제트박물관(DMZ박물관)은 본 공모전을 통해 전쟁과 분단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비무장지대(DMZ)를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파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MZ공무원 창의적 아이디어, 시 도약·혁신 발판으로”

아산시, 7월 '제1기 주니어보드 발대식'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이 조직문화 개선과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MZ세대 공무원들을 만났다.

아산시는 지난 7월 '나와유 온양정'에서 '제1기 아산시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열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아산시 주니어보드는 공직사회 내 MZ세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구성됐다.

근무 기간 5년 이내, 7급 이하 20~30대 공무원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5개월 동안 스스로그램 토의, 스월레 전체회의 △혁신역량 강화 활동 △근부 공무원과의 대화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시정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MZ세대 공무원들이 평소 아산시 조직문화와 시정에 갖고 있던 다양한 의견과 질문에 답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지금 여러분은 청운의 꿈을 품고 공직사회에 들어와 공직사회에 융화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아직 외부인의 관점으로 공직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시야와 청년들만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조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매일 변화와 혁신을 마주하고 있는 도시인 만큼,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시각과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우리 조직과 아산시를 더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어 “5년 이하 공직자로 구성된 주니어보드뿐 아니라 20년 차 이상 공직자로 구성된 시니어보드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참신하고 통통 튀는 주니어보드의 아이디어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시니어보드의 노련함과 조화를 이룬다면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주니어보드 임원들을 향해 “아산시 주니어보드는 아산시 혁신과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 조직의 혁신을 위해 창의적인 시각으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민이 찾은 지역문제, 민관이 함께 푼다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본격 운영...7개 실행의제 선정·추진



충남도는 도민들이 발굴한 지역문제를 민관이 힘을 모아 해결하는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결해 나가는 민관 협업 소통 창구다.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실행의제별로 협업 희망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해 도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참여 공공기관으로는 충남개발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이 있다.

앞으로 추진할 7개 실행의제로는 △폐현수막을 이용한 농업용 제초 매트 제작 △충남 바다 환경 지킴이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딤돌 사업 △내포 문화 자원 활성화 사업 △노인

정서적 소외극복을 위한 치유정원 운영 △홍성 로컬 커뮤니티 기반 조성 △당진 도큐먼트 등을 선정했다.

각 실행의제는 도민 참여를 바탕으로, ‘생활실험’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예산 스피드플러스에서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충남개발공사, 호서대학교 등 42개 기관과 7개 의제실행팀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도민 주도로 발굴한 실행의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상욱 도 새마을공동체과장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민·관·공·협업체계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올해 실행의제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상반기 공모사업 확보액 전년 동기 452억 ↑

태백시는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와 강원도 등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16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510억 원의 확보를 성취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액은 △산림복지 클러스터 조성사업(273억)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190억)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20억)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16억) 등이다.

지난해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 건수는 10건, 국도비 확보액 58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 성과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급증한 것은 국도비 확보 전담조직 구성,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이상호 태백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재원 유치가 시급한 과제라 판단하여 공모사업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왔으며, 공모기관을 직접 찾아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모사업 발표자로 나서는 등 외부재원 확보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시는 현재 심사 중인 9개 공모사업과 응모 준비 중인 3개 사업도 선정 당위성 및 논리 개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외부재원은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천안시, 인구100만 대비 ‘트램·경전철 도입’ 검토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조사 용역 착수

천안시가 인구 100만인 시대에 대비하고 시내버스 위주의 대중교통 체계를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개편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7월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등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천안시는 박상돈 시장의 취임 이래 ‘최악 천안 시내버스 오명’을 씻기 위해 심야버스·도심순환 급행버스노선 도입, 수도권전철 환승할인 시행,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무료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저상버스의 도입, 시내버스 디자인 변경,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설치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도 계획되어 있어 도시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천안시는 장기적으로 천안시 인구 100만인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검토에 나섰다.

2023년 6월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69만 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증가율은 3.6%로 인구 증가율 1.1%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주차장 확보율 기준 130%에 못미치는 102%에 불과해 주차난, 교통혼잡, 미세먼지 등 교통과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BRT, 하이모달트램(GRT), 무가선 저상트램, 자

동안내캐드차량(AGT) 등을 비교하고, 추후 연구를 통해 천안시에 적합한 차량 시스템과 노선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제시된 노선안은 KTX천안-산악-천안시청(종합운동장)-봉서산-천안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과 천안시 洞지역을 순환하는 순환형 노선이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사전조사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여론을 청취하는 등 신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 내년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충청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앞으로 10년 후를 대비해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원주시, 첨단 국방과학도시 조성 위한 비전 선포

3대 전략과제 발표, 포럼 등 국방과학산업 육성 위한 실천의지 표명

원주시가 미래 국방과학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첨단 국방과학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 및 포럼’을 오는 9일 원주 인터볼고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다.

원주시와 원주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1부 선포식, 2부 포럼 순으로 진행된다.

원주시는 이날 행사를 통해 첨단 국방과학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위한 산업기반을 기초부터 착실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원주시는 첨단 국방과학도시 조성을

위해 ▲ 미래 바이오 군 식품 분야 집중 육성 ▲ 무기체계 성능개량 산업 및 군수장비 제조업체 유치 ▲ 미래형 첨단 무기 분야 집중 육성 등 3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년 내로 ‘첨단바이오 국방과학도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국회 정책 세미나’ 등 각계각층의 고견을 두루 수렴하여 사업 추진의 내실을 착실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원주의 우수한 교통여건과 현재 집중 육성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를 접목한다면, 원주가 미래 방위산업 분야를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첨단 국방과학도시 원주 비전 선포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금천구, 치매 걱정 없는 '기억보듬마을' 조성

치매 안전망(치매 안심 가맹점, 안심주치의) 구축, 찾아가는 기억력 검진, 기억안심택시 이동서비스 등 운영



금천구는 치매 환자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기억보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억보듬마을'은 지역주민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마을

을 의미한다.

금천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3천만 원(국비 1천5백만 원, 시비 750만 원 구비 750만 원)을 확보했다.

금천구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계기로 추진 중인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치

매 안전망' 구축 ▲ 찾아가는 기억력검진 ▲ 기억안심택시 이동 서비스 ▲ 동네방네 기억 교실 등 사업을 강화한다.

기억보듬마을 지정동(독산1동, 시흥1동, 시흥2동) 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다른 동까지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약국, 편의점 등 개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치매 안심 가맹점'을 모집한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배회하는 어르신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치매 관리사업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도 동참한다.

안심주치의는 병의원과 금천구 치매안심센터가 협약해 운영한다. 기억력검진, 치료, 상담을 진행해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 지속적인 치료관리로 중증화 방지에 힘쓴다.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기억력검진'도 진행한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알아보기 위해 문답식으로 진행하며, 필

요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정밀검진과 전문의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별 검진 일정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억안심택시 이동 서비스'는 어르신 이 건강 악화, 인지 저하 등의 이유로 진단검사,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할 때 이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지역 택시조합과 협력해 운영한다.

그 밖에도 ▲ 뇌 운동, 기억력 훈련,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네방네 기억교실' ▲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치유 프로그램 ▲ 치매 등록자에게 기억 안심 꾸리미를 전달하는 '기억보듬 봉사단' 등을 운영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가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주민들과 함께 기억보듬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며, "어르신들과 접촉이 많은 개인사업장에서도 가맹점 지정에 협조해 달라"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서초구, 서울 자치구 최저금리 0.8%.. 중소상공인 최대 1억 대출지원

구, 고물가, 고금리 상환서 기업체 부담 줄이는 저금리 대출사업 지속 추진



서울 서초구는 지속적인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먼저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저금리인 연 0.8%의 이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이달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구는 올해 상반기 총 32개소, 30억원 대출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40억원 규모를 추가로 운영한다. 업체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이며,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아 상환중이거나 휴·폐업 업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업체 및 향락·사치업종 등 부적합 업체는 제외된다.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춰 신한은행 3개 지점(서초

구청지점, 양재역금융센터, 양재동지점)을 방문하면,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는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올초부터 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증재단과 시중은행(신한, 우리,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정은행 대출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한도사정 없이 업체당 7천만원까지 대출을 보증하며, 추가 신용평가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도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지정은행 방문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8월 기준 3%대(변동금리)의 금리로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역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14개 지점에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접수 가능하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업체 상황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풀한 저금리 대출을 통해 침체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서대문구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 제주국제관악제서 무대 데뷔

관악제 'U-13 밴드 콘테스트' '해외 관악단과의 교류연주회' 참여

서대문구는 구가 운영하는 '서대문구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가 2023 제주국제관악제에 참여해 관객들에게 공연을 선사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국제관악제(JIWEF -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는 재능 있는 젊은 관악인들을 발굴 육성하고 관악인들 간의 우정을 나누기 위해 1995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국제 관악콩쿠르다.

이 행사에 특별출연팀으로 초청받은 '서대문구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는 7일 오후 제주도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U-13 밴드 콘테스트'에서 보기 대령 행진곡,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주제곡, BTS의 다이너마이트(편곡) 등 3곡을 연주했다.

지휘는 이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인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이철웅 교수가 맡았다.

첫 곡부터 관객의 호응을 얻은 가운데 특히 '다이너마이트' 연주 때에는 관객들이 환호와 함께 리듬에 맞춰 울동을 하기도 했다.

연주 후 많은 박수와 앙코르 요청이 있었으며 마지막 곡을 다시 연주하며 순서를 마무리했다.

특히 첫 무대 공연이고 5개월여밖에

되지 않는 연습 기간이었음에도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연주에 앞서서는 진경식 서대문구 부구청장이 '서대문구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를 관객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서대문구는 올 들어 미래 세대의 공동체 인성 함양과 재능 개발 등을 위한 '1인1악기 특화교육 사업'을 통해 이 오케스트라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연초 모집 공고를 거쳐 올해 3월 출범한 이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사회 문화 환경에 지닌 8~16세의 서대문구 어린이와 청소년 5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이들의 재능과 선호를 고려해 개인별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튜바, 드럼 등 9종류의 악기 가운데 하나씩을 배정했다.

처음 접하는 악기였지만 이철웅 교수와 9개 악기별 강사들로부터 매주 기초 연주 교육(90분)과 합주 교육(90분)을 1번씩 받으며 실력을 쌓았고 음악을 매개로 단원들 간의 친밀함도 높였다.

개인별 연주 악기는 구가 전문 업체에서 장기 대여해 무상 지원하고 있다.

한 단원은 "무대에 서는 것이 떨렸지만 연습을 하며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 단원들과 아름다운 합주를 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이런 무대에서 연주하

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성훈 구청장은 "단원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보행자 중심, '밤길 안심 관악' 관악구, QR코드 축광형 건물 번호판 설치

어두운 곳에서 횡행빛을 방출하여 밤길 보행자의 야간 건물번호 식별 용이

관악구가 어두운 밤 골목길에 주소 식별이 용이하고 SOS 원스톱 신고가 가능한 'QR코드 축광형 건물 번호판'을 설치했다.

어두운 골목길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은 건물번호를 알아볼 수 없어 긴급상황 시 위치 파악이 어렵고,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이에 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m 미만의 좁은 골목길이나 보안등 미설치 지역 가운데 입지분석과 현장 확인을 거쳐 '난우12길 안심골목길'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2013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건물 번호판 중 280개를 QR코드

축광형 건물 번호판으로 교체했다.

'QR코드 축광형 건물 번호판'은 자연광 또는 인조광의 에너지를 흡수, 축적하여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방출해 야간에 건물번호 식별이 용이한 번호판으로, 비상시에는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SOS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QR코드 축광형 건물 번호판이 필요한 지역을 계속해서 발굴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청정 안전 삶터 '밤길 안심 관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예천_회룡포

좋아요 79,848개
yecheon #육지안심 #뽕봉다리 #트래킹

예천_곤충생태원

좋아요 89,719개
yecheo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예천_강문화전시관

좋아요 69,752개
yecheon #삼강주막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82,134개
yecheo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항상

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권역별 창의융합 사제동행캠프 운영

학생들의 미래를 빛내는 사제동행캠프! 창의융합의 장

경북교육청은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26팀 104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권역별 창의융합 사제동행캠프'를 운영한다.

사제동행 캠프는 학생 3명과 교사 1명이 1팀을 이루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게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는 북부, 남동부, 서부 3개 권역별로 진행된다.

북부지원단은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로 과학하다'는 주제로 STEAM 교육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만들기, '국립미래환경센터 체험'이라는 주제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동부 지원단은 포항 발명 교육센터에서 '레고 FLL Jr. Explore SuperPowered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에너지 발생 원리를 이해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더 나은 에너지 발생 방법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한다.

서부지원단은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STEAM Maker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최적의 비행 성능을 발휘하는 비행기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캠프가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도전의식의 함양은 물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교육지원청 수해 복구 지원 봉사활동 실시

"지역사회 복구를 위해 구슬땀 흘려"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문경시 동로면을 방문하여 수해 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호경 교육장을 비롯한 청송교육지원청 직원 25여 명이 참여하여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탤었다. 청송교육지원청은 지난 올진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진화 작업에 동참하는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여러 지원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동로면 오미자 공장을 찾아 토사 처리 작업과 집기 세척 작업을 하였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폐기물 수거 및 훼손된 비닐하우스 비닐 제거 등 수해 복구 작업에 열중했다.

김진배 동로면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불구하고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지역민들의 일상 정상화에 큰 기여가 되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호경 교육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경북의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지역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지원 활동이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삶의 터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초등 체육수업 전문가를 향한 비상

2023 초등 체육수업지도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문경실내체육관에서 도내 초등교사 34명을 대상으로 '2023 초등 체육수업지도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체육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학생들의 선호 종목인 배드민턴과 탁구를 선정해 교사들의 실기 능력 향상과 수준별 지도법, 리그 운영 방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질 높은 강의를 위해 배드민턴은 국가대표 상비군을 역임하고 현재 상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 탁구는 청소년 국가대표를 역임한 현직 탁구교실 전문 강사를 초빙했다.

특히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 2개 반으로 나누어 반별 3시간씩 배드민턴과 탁구를 번갈아 가며 연수를 진행한다.

종목별 연수 후에는 현장 수업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수업 노하우 공유와 학교체육 활성화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박종진 체육건강과장은 "초등학교 체육수업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체육수업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체육교과연구회, 각종 교사 동아리와 연계해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교육청자연탐구원,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연수

초·중등 교원 대상 생태환경교육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이 8일 전남교육청자연탐구원에서 도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2023. 하계 기후 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초·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면서 교원의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지의류(地衣類) 알아보기, 멸종위기 식물 알아보기 및 흙과의 만남 화분 만들기, 기후 위기 생태환경교육 사례 및 경험 구성 등을 공유했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 생태환경교육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생태적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모색했다.

강사로 나선 서울 송문중학교 신경준 교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학교환경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기후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숙영 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교원의 깊은 이해와 전문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생님들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경기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적극 지원

연수원 숙박시설 제공, 지역교육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시행

경기도교육청이 8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우선 태풍으로 인해 새만금에서 철수한 참가자들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파주시에 위치한 경기도올림픽연수원을 숙박 시설로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올곡연수원에 담당자들을 긴급 파견해 숙박시설 점검 등 참가자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역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김포 지역캠퍼스에서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고추장 만들기, 한지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성남 지역캠퍼스에서는 남한산성 견학, 전통 문살 만들기, 단청 체험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용인 지역캠퍼스에서는 K-문화 이해의 일환으로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 호암 미술관 방문 견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잼버리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 상 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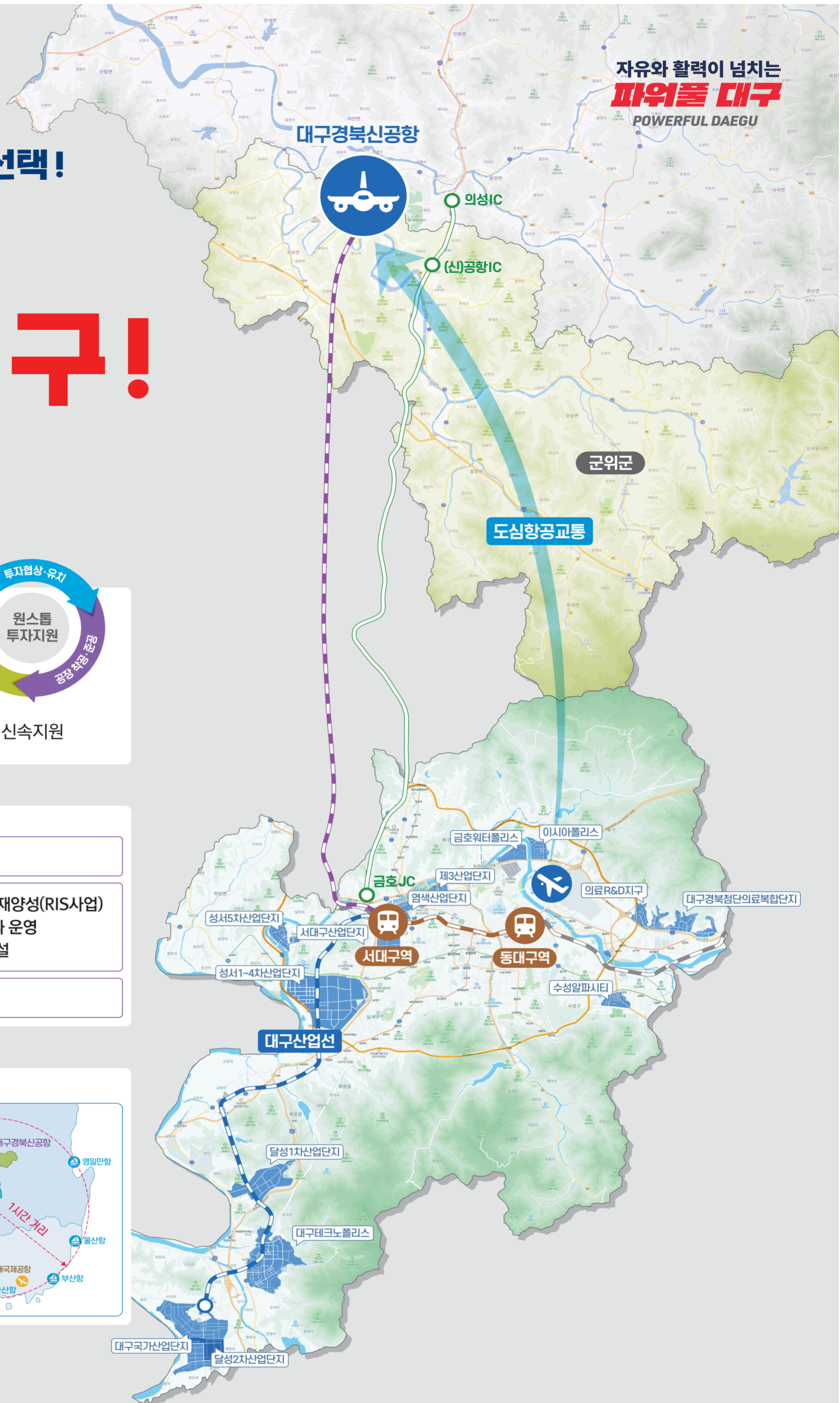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권력 점프를 위한 남다른 선택!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Who is the next?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POWERFUL DAEGU



원스톱투자지원단 운영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2개월 내 원스톱 투자지원

- 15개 기관 투자지원협의체 ▶ 중요사안 해결책 모색
- 30개 기관 340명 실무지원단 ▶ 사안 발생 즉시 맞춤형 신속지원

투자협상·유치
원스톱 투자지원
시공·관리
공정·청정·경쟁

원활한 인력수급

산·학협력	39개 R&D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인재양성	전자정보기기, 미래차전환부품 분야 인재양성(RIS사업) 삼성전자 - 경북대 모바일공학 계약학과 운영 삼성전자 - DGIST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우수인력	대구권 51개 대학 연간 7만명 인재 배출

최적의 투자 입지

- 대구경북신공항 및 첨단산단, 제2국가산단 등 건설
- 한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4개 국제항만
- 전국 모든 곳으로 열려있는 철도와 고속도로망

5대 미래산업 집중육성

UAM연계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T컨소시엄 협업 UAM 기반 구축 • 미래모빌리티 소부장산업 육성 (모터, 배터리, 마이크로EV) • 기업이 몰려드는 자율주행산업 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센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생태계 조성 • D-FAB 센서 파운드리 구축 • 센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DGIST 센소리움연구소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 • 서비스로봇 실증 및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전주기 (데이터수집·중개, 개발·실증, 판로개척) 지원 • 의료산업 사업화(판로개척) 중점 지원 • 디지털 치과클러스터 구축 및 디지털치료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과기부 5대 협력프로젝트 추진 • ABB성장펀드 운영

섬이 그리는 대한민국

제4회

섬의 날

in 울릉도

울릉 최초의 국가 행사

2023. 8. 8. (화) ~ 8. 11. (금)

* 기념식 장소 : 사동항, 19:00

